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4호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

비종교인, 외국인 만족도 높아
세계인 종교 문화 축제로 승화

조계종,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살펴보니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설문조사
고연령층, 비종교인, 외국인 만족↑
전체 만족도 100점 만점에 80점

행사장 접근 문제 및 영어통역 과제
평화토론회, 해외고승 법문 요청도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달간 전문리서치기관 'INR플러스'에 의뢰해 내외국인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 수록, 종교가 없는 이일수록, 외국인에게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 행사 아닌 하나의 축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기원대회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기준 만점에 5.8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00점 만점도 환산시 80.12점에 해당한다.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내용과 질적 수준이 5.8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5.8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화문 광장이란 환경요인은 5.73점으로 4가지 질문 사항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응답자간 특성에서는 남성(5.85점)이 여성(5.75점)에 비해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연령대는 60대(6.24점), 50대(5.98점), 40대(5.75점), 30대(5.49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례적으로 20대와 그 이하 연령층에서 높은 만족도(6.02점)를 보였다.

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6.05점)가 종교인(5.80점)보다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6.32점)이 내국인(5.72점)보다 만족도가 높아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적인 행사를 넘어 하나의 축제행사이자 대회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친절도 Best, 접근성 Worst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진행자의 친절 및 신속대응(6.12점)이 1순위를 차지했다. 조계종 포교사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2가지 항목인 광복70주년 취재의 적절성, 행사내용의 유익성은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해 향후 차기대회에서의 과제로 남았다.

만족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환경요인의 세부항목에서는 행사 참가의 용이성(5.60점)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안내표지판 등 안내(5.73점), 편의시설(5.73점)도 평균에 머물렀다. 반면 행사장 환경의 쾌적성은 5.84점을 기록해 전체 만족도 점수를 넘어섰다.

조계사 일대의 제등행렬에 이어 광화문광장의 평화기원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이 차기대회의 과제로 꼽힌다.

자발적인 불자 참여 필요

이번 세계평화대회의 참가동기를 살펴보면 참가자의 47.5%가 '대회 목적과 취지에 동감해서'를 꼽았다. 반면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알고싶어서'는 23.5%, '주변에서 참가를 권유해서'가 25.1%가 나와 간화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이밖에 기원대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다른 이에게 추천할 의향(5.89점)이 있으며 재참가 의향(5.82점)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6.25점) 높은 재참가와 추천 의사를 보였다. 이 같은 만족도 이유에는 외국인의 경우 행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한국불교와 고승들의 식견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행사준비기간 확보 및 일반인 중심 행사가 부족했음을 꼽았고, 외국인의 경우 통역 및 영어 안내 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장 후미의 행사진행 전달 보강, 일반대중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외국인에 대한 영어 안내 보강, 해외초청인사의 발언 기회 부여, 세계평화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개최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구글서베이에서 한글과 영문, 중문, 일문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리서치가 진행됐으며 내국인 219명, 외국인 38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평화 기원대회 만족도



[n=257 / 단위:점 / 7점 기준]





'아! 봄소식 싣고 매화가 왔구나' 지난 1월 폭설로 항공기 결항 등 교통이 완전마비됐던 제주도에 언제그랬냐는 듯 봄이 벌써 왔다. 육지는 아직도 추위가 한창인 한반도의 첫 봄소식이다. 전령사는 추운 겨울을 버텨낸 매화다. 오랜 인고의 기다림 끝에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는지, 옛 선지식들은 봄꽃 매화(梅花)를 시와 게송 그림으로 예찬했다. 사진은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린 제주시 관음정사에서 2월 10일 촬영했다. 쾌청한 날씨 덕에 활짝 피어낸 매화는 사찰의 고풍스런 멋을 한껏 더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조계사에 '꼬마평화도서관' 들어서

여는사람들, 미황사 · 전법회관에도 건립 추진

서울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 평화사상을 알리는 '꼬마평화도서관'이 세워졌다. '꼬마평화도서관을여는사람들'(대표 변택주, 이하 여는사람들)은 '붓다로살자'와 함께 2월 16일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 평화 관련 서적 30여권을 비치한 꼬마평화도서관을 설치했다.

꼬마평화도서관을여는사람들은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두루 평화로워지려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모토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 이들은 전국에 꼬마평화도서관을 1만개를 열겠다는 목표로 파주보리책놀이터, 사찰음식점 '마지', 제주도 새마을회관 등에 꼬마평화도서관을 열어왔다. 지난 1월 17일에는 한국전쟁 노근리 참사 현장인 노근리평화박물관에 10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을 설치한 바 있다. 꼬마평화도서관에는 평화와 관련된 책들이 구비돼 있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꼬마평화도서관이 세워진 이날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생명평화기도가 500일을 맞는 날이었다. 붓다로살자는 그동안 세월호의 아픔을 풀자는 염원을 담아 1000일간 하루 1000배씩 100만배를 올리는 기도를 해왔다. 꼬마평화도서관에는 '세월호 희망을 여는 길내기'라는 이름의 이름패도 함께 걸렸다.

변택주 여는사람들 대표는 "불교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종교"라며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과 우정총국공원에도 추가로 평화도서관을 열 예정이다. 미황사를 비롯한 다른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도 도서관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도서관은 생기는데 실제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밥집과 술집에도 도서관을 열자고 했다. 등산로를 비롯해 보다 많은 이들이 평화사상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꼬마도서관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정스님 불일암 무소유길 복원된다

송광사 탑전~불일암까지 1.5㎞
6월까지 안내판도 함께 정비

지난 2010년 입적한 〈무소유〉 수필의 저자 법정 스님이 생전 당시 자주 포행하던 전남 순천시 송광사에서 불일암 까지의 '무소유길'이 새로 복원된다.

송광사 탑전서 불일암까지 1.5㎞ 구간에는 늘 푸르름을 자랑하는 대나무숲길 50여m를 비롯해 아름드리 삼나무 · 편백나무, 바람결에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는 상수리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현재의 조성된 길은 송광사를 떠나 1㎞ 거리부터 경사진 바윗길이 시작돼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걷기 어려울 만큼 험난했다.

이에 순천시측은 바윗길 일부를 정비하고 좁은 폭을 넓히는 복원사업을 통해 6월 말까지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라고 2월 2일 밝혔다.

탐방객들이 찾기 쉽도록 이정표가 설치되고 입구에는 안내판도 세워지는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5년부터 법정 스님이 거처한 불일암은 자정국사(1293~1301)가 창건해 자정암으로 불려오다 법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일암'이라고 이름 붙인 현판을 내걸었다. 불일암 가는 길에는 법정 스님의 법어가 적힌 팻말 5개가 길잡이를 하며 무소유길임을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인권위 스님들이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

"中전사자, 정토세상에 태어나길"

불교인권위 등, 2월 10일 파주 적군묘지서 영가천도재 봉행

한 · 중 불교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올렸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한중불교문화협의회 · 한중평화우호협회의와 공동주최로 2월 10일 파주 중국군전사자묘역에서 '제1회 중국군전사자 설날 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진관 스님의 중국군전사자를 위한 위령시에 이어 추모사, 영가천도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한 불교상담개발원장 도성 스님은 "전쟁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에 오로지 평화만이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서 "중국의 군인들이 전사한 영혼을 위로하고 정토세상에 태어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영가를 위로했다.

또한 안준석 한중불교문화협의회장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며 "우리는 속히 당신들(중국군)이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 또한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하루빨리 그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성 스님, 안준석 한중불교문화협의회 공동회장, 한중불교문화협의회 부회장 성법 스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 선학원 同根의 역사를 살피다

김광식 교수, 〈문 · 사 · 철〉 43 · 44호서 고찰

조계종 · 선학원 각자 입장서
우위성 · 당위성을 이해 · 설명
역사적 객관성 문제 제기해

조계종, 근대불교 유일 계승
선학원은 변화 촉매제 역할
냉정한 역사 성찰 이뤄져야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조계종과 선학원을 지칭하는 내용에는 '같은 뿌리'라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조계종은 조계종의 입장에서, 선학원은 선학원의 입장에서 각가의 우위성, 주체성을 당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다. 이런 역사 인식은 역사성, 객관성, 보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흔히 '같은 뿌리(同根)'라고 불리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문학 · 사찰 · 철학〉 43 · 44호(합본)에 기고한 '조계종과 선학원 同根의 역사 및 이념'을 통해 현재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냉정한 성찰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선학원 연구가 태동과 전개 과정 및 이념 등을 다루면서 조계종단과의 연관성을 주목해 다루지 않았고, 현재 조계종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우위성을 역사를 통해 입증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조계종 역사에서 1962년 통합종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불교사를 배척 · 간과할 가능성을 유발한다"면서 "선학원의 경우에서도 선학원을 만들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주역인 승려들의 출신 · 연고 사찰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논문의 대부분을 선학원의 태동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학원이 민족불교, 정화불교,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1910년대 임제종 운동에서 나타난 민족불교운동을 계승한 선학원은 일련의 불교 운동의 거점이었고, 이는 범어사 등 전국적인 수좌 및 선원을 기반으로 활동이 전개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조계종과 선학원은 일제 식민지 불교를 극복하려는 저항과 대항, 대결의식에서 나왔다"면서 "이는 역사와 이념이 동질적이라는 큰 틀에서도 당연한 이해이지만, 구체적인 출범, 존립도 같은 기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조계종은 1962년 창종된 것이 아니라 근대불교의 종단 설립 운동 및 교단체제를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라며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성찰, 정화운동, 재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점이며 운동 본부, 이념을 제공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현재의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에 대해 양비론(兩非論)적으로 접근하며 대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선학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전국 선원과 수좌들의 중앙기관적 성격을 가졌음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의 선학원이 각처의 선원, 수좌와 일체의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계종에 대해서도 상당 수의 조계종 스님들이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했지는에 대해서도 성찰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전후 사정을 포함한 조계종단과 선학원의 역사에 대한 냉정한 직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역사의식을 기조로 해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체성 및 지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울산 간월사지 정밀조사 된다

울산시, 올해 문화재 보존 정비 계획 밝혀

울산 간월사지 시 · 발굴을 통해 정밀조사된다.

울산시는 "울산시는 시지정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해 문화재관리 등 16개 사업에 18억 3,500만 원을 구 · 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울주군 간월사지 발굴조사다. 1984년 일부 발굴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전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 조사는 시비와 군비 6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중구의 구강서원 관리 등 7개 사업에 9억 5,810만 원 △남구의 문화재관리 인부임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동구의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비 등 4개 사업에 6,450만 원 △북구의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4,220만 원 △울주군의 문울산시 지정문화재는 총 136건(국가 지정 29, 시지정 107)으로 시지정문화재 상시 예찰과 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인부임도 이번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도 빠른 시일 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6억여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가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6년 시지정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해 지원된 사업비는 기초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특히, 올해는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와 기술 보급을 위해 전승보호비와 전수교육보조자 지원금을 각각 월 42%(30만 원), 25%(10만 원)씩 증액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발전과 보존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 '호평'

기능 추가해 2억 미만 재정 사찰에도 보급

조계종이 올해부터 2억 미만 재정의 사찰에 보급하는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이 사찰측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은 신년계획에서 올해부터 2억 미만 재정의 사찰에게도 신규 재무관리 프로그램〈사진〉을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1999년 12월 가람지기1의 1.0버전을 보급하기 시작해, 2002년 9월 2.0버전, 2010년 1월 가람지기 3.0버전을 보급한 바 있다. 2012년 7월부터 기존의 행정 전산처리 등을 간소화하고 종단 행정과의 연동성을 높인 가람지기 2를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보급해왔다.

이번에 보급된 프로그램은 가람지기 2의 개선형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재정 사찰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특히 재무관리 기능이 강화됐다. 조계종이 밝힌 사찰 회계관리 투명화의 기초작업이다.

먼저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을 보면 쉬운 결의서 작성메뉴가 도입됐다. 전산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결의서를 등록, 삭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람지기2 프로그램에서 종무행정을 통해 접수한 내역이 재무관리에도 연동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9일 가람지기2를 설치한 원주 국형사 최영일 사무장은 "예전 회계장부보다 행정처리가 훨씬 간소화됐다"며 "먼저 회계 계산이 자동화됐고, 종단 서식에 맞춰 기입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아직까지는 사찰에는 없는 회계과목이 한번에 출력되는 단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일선 사찰의 종무행정을 돕고 종단과의 업무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람지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종무행정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 가속화

2월 18일 월정사 법륜전서 탑돌이 재현 및 토론회 개최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에서 진행되는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탑돌이보존회는 2월 18일 오후 2시 경내 법륜전에서 '월정사 탑돌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탑돌이 행사로 문을 연다. 법고 소리에 맞춰 향탕수를 오방에 뿌리는 쇄향수 의식과 합창단의 2인식 육법공양에 이어 무용팀의 우슬착지 등이 진행된다. 또 법당돌기에서 등받기 의식과 바라춤, 정근이 이어진다. 본행사인 탑돌이에서는 무용팀의 나비춤과 정근, 탑돌이노래 합창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토론회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경남 한중대 교수의 사회 아래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월정사 탑돌이의 기원과 변천' 기조강연, △월정사 교무 자현 스님의 '탑돌이 기원과 한국적 전개', △불찬범음의례교육원학장 혜일 스님의 '월정사 탑돌이 연행 보고' 등이 진행된다.



월정사탑돌이 재현 장면.

월정사 측은 "예로부터 탑돌이는 한해의 무사안녕과 함께 국운 융창 등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였다"며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탑돌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법성게 정진도는 법, 십바라밀 정진 도는 법 등의 탑돌이 불교의례가 전해지고 있다. 현행 월정사 탑돌이는 '연등탑돌이'가 '법계도'와 결합된 '법계도 연등탑돌이'로 열린다. 본탑을 세바퀴 돌고 '법계도'를 상징하는 'ㄹ'자 형태로 탑 앞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봉

일붕 호국기원 및 부처님과의 만남 출판기념 대법회

만주 큰스님 고희 및 포교 38년

축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대불종(만주사) 종정 만주큰스님의 고희를 맞이하여 「일붕 호국기원 및 부처님과의 만남 출판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2월 좋은날

일 시 : **불기 2560(2016)년 2월 28일 일요일 11:00**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59)
주 최 :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후 원 : 108TV · 연합불교방송 · 현대불교신문
연락처 : 010-9257-0278 / 041)547-7792



한 국 불 교 대 불 종 만 주 사

상좌 : 현진, 무송, 성진, 성인, 성화, 성만, 성덕, 성호 합장

홍법사엔 '외국인 불자 봉사자'가 있다

합동 차례 · 법회 등 사찰 행사
외국인 불자 봉사자 안내 맡아
불교 체험 · 언어 학습 '일석이조'
2월 중 '국경 없는 봉사회' 출범
외국인 포교 새로운 모델 '주목'


홍법사 12주년 개산대재 육법공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봉사자들.

2월 8일 설날, 부산 홍법사에는 합동 차례를 지내기 위해 방문한 불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자원봉사자들마저 귀향한 상황에서도 홍법사의 합동 차례는 여법하게 진행된다. 이유는 홍법사에서만 볼 수 있는 외국인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한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질서 유지를 진행하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다. 여기에 합동 차례를 지낼 때는 직접 잔을 채우고 제사를 함께 올리기도 한다.

사실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홍법사에서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지난해 12주년 개산대재에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등을 들고 육법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체험을 통한 성취감을 중요시 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에서의 봉사는 상당한 매력을 가진다. 실제, 봉사에 참가는 외국인들은 언어 학습과 불교 체험 등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에서 온 산지부 구마로(33, 동국대 불교학과) 씨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소 짓고 봉사하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며 "심산 스님은 저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밝혔다.

티베트 출신 뗀진 최된(27 · 동국대 국제경영학과) 씨는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수행법은 다르지만 불교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인이여서 깊은 수행은 못하지만 봉사 활동을 통해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홍법사에서 봉사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단체 결성도 준비 중에 있다. '국경 없는 불자 봉사회'(가칭)이라고 명명된 단체는 모여 2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10여명으로 시작할 '국경 없는 불자 봉사회' 구성원들은 출신 나라와 직업도 다양하다.

티베트에서 7년 동안 불교 수행을 이어온 미국인 에밀리 켈리 교수(동국대 영문과)를 비롯해 티베트, 몽골, 인도 등에서 온 동국대 교환학생, 캐나다인까지 모두 홍법사를 위해 봉사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홍법사에서 국제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심지영 국제 포교사는 "봉사는 외국인들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가족애처럼 끈끈한 정을 쌓게 한다"며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한국불교문화를 깊숙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6년 넘게 봉사 활동을 이어 오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봉사회'가 앞으로 담당할 역할은 수행이다. 홍법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수행을 위한 지도도 진행한다. 법회도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조한 즉문즉설 형식의 법문과 체험 위주가 된다.

심산 스님은 "외국인들은 일방적인 형식의 법회 보다는 대화하며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그런 특징을 잘 살려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또한 외국인들을 접해 본 결과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참선이다. 참선을 통한 명상 수업도 진행해 깊이 있는 불교 수행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봉사회로 인해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구심점이 마련 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 청소년들과 대학부 청년들과 어울리는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젊은 불자 포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봉사단 창단 원동력에 대해 홍법사에서는 20년 동안 어김 없이 이어온 국제부 활동과 국제 포교사들을 위한 심산 스님의 후원과 관심을 꼽았다. 국제포교사 부울경 지부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국포사를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한나래문화재단을 통해 가난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심산 스님은 "그들은 이제 봉사와 수행으로 외국인들 가운데 구심점이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불자들을 포교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이어 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민추본, 청년불자 위한 '통일 강연' 첫 선

2월 18일~3월 25일 6강 실시… 고성 현장순례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불자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더프라미스가 공동주관하는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1기'는 2월 18일 개강해 3월 25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통일관련 강의를 실시한다. 강사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세부 강의주제는 △2월 18일 '분단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2월 26일 '분단은 현재 진행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분단 트라우마까지' △3월 4일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 △3월 11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 △3월 18일 '불교와 통일-불교계 통일을 위한 실천과 노력' △3월 25일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현황' 등이다. 특히 3월 26~27일에는 1박 2일로 고성 접경지역 현장순례를 떠난다.

모집정원은 15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전화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민추본 측은 "이번 과정으로 남북불교교류에 이바지할 미래 인재를 꾸준히 발굴, 양성할 계획"이라며 "정치권과 사회에서 '통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불교계 청년학생들이 통일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720-0531

박아름 기자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실시

문화재청, 11월까지 4개 분야 9개 과정 운영

매장 문화재 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조사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2016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교육 1개 과정(조사현장 안전보건) △전문교육 · 직무분야 2개 과정(법령과 행정실무, 조사기관 운영 특강) △전문교육 · 조사연구 분야 5개 과정(토층조사, 유물실측, 구석기유적 조사, 발굴보고서 작성, 지표조사) △시민강좌 1개 과정(매장문화재 보존관리 홍보) 등 4개 분야 9개 과정을 개설 · 운영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강사진을 위촉하여 실습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전문가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교육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관련 학과 대학(원)생,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 관계자 등으로, 이번 교육은 발굴조사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공고를 비롯하여 교육일정과 참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본 아나키즘

불교평론, 18일 열린논단

아나키즘(Anarchism)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모든 정치 조직이나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을 불교적 해석하고 사상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2월 18일 불교평론 신사동 사옥 세미나실에서 '아나키즘의 불교적 해석'을 주제로 2월 열린 논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아나키즘 전문가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불교평론은 "아나키즘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가르치는 불교와도 매우 흡사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열린논단은 불교와 아나키즘이 어떤 동이점을 같는지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학술상 공모 잇달아

원효 학술상 2월 29일 · 전법 학술상 4월 30일까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상 공모가 잇달아 진행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제7회 원효학술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한은 2월 29일까지이며, 부문은 교수,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 · 박사 과정 학생이다.

공모 논문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홈페이지(www.kbpf.org)의 지원서를 내려받아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를 하면 된다.

교수 저술상은 1000만 원, 논문상은 700만 원이며, 비전임교수는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 원이며, 석 · 박사 과정 학생은 금상 300만 원, 은상 250만 원, 동상 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02)719-2606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스님)이 전법과 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전법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전법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분석 △전법의 역사적 사례 및 전법에 헌신한 인물 탐구 △전법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에 대한 현대적 방법론 제시 △미래 지향적 전법론과 방법론 제시 등이다.

응모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 외 교수 및 학자(전공불문), 승가대 학인, 군법사, 포교사, 종무원 등 불교기관 종사자다.

연구계획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메일(baramil7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고 완성 논문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31일 개별 통보된다.

바라밀상 1명에는 상금 500만원, 전법상 2명에게는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논문은 시상식 날 발표회를 갖고, 불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당시 불교 모습 배워보자

제따와나불교대학 3월 개강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원력을 모아 지난해 개원한 제따와나초기불교대학이 2016년도 신입생을 모집, 오는 3월 개강한다.

제따와나초기불교대학은 공덕반 · 1학년 교학반 · 2학년 수행반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덕반은 초기불교에 입문하는 이들이 배워야할 '불교의 기본교리'와 '부처님 일대기'를 초기경전에 근거해 배우는 과정이다. 1학년 교학반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고, 불교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불교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2학년 수행반은 초기불교수행의 정수인 팔정도를 공부해 바른 수행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대념처경〉 등 초기불교수행 지침경전을 공부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수행법을 공부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제따와나선원 홈페이지(www.jetavana.net)에서 가능하다. 02)595-5115

윤호섭 기자



백창우 | 212쪽 | 13,000원 | 양장

"깨달음에 이르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평화롭고 명쾌한 지혜의 방편

김영사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화제의 신간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선생이 안내하는 연기법 수행의 요체
연기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연기법 이론부터 연기맵 그리기, 수행 중 마주치는 경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먼저 수행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마음공부의 어려움으로 방향 잃은 당신을 위한 가장 쉽고 실질적인 수행법.

백창우 | 인터넷과 카페를 통해 깨달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적광서울센터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불교닷컴〉에 칼럼을 연재했고, KBS 제1방송과 불교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저자가 지도하는 일주일간의 집중수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저서로 수행지침서 《명쾌한 깨달음》 《이것이 깨달음이다》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가 있다.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안내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지름길은 있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도의 안개 길에서 목도한 질문과 명쾌한 해답.
백창우 | 800쪽 | 28,000원 | 양장



'인간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 혜민 스님, 소설가 김연수가 추천한 사상가, 켄 윌버
그의 지적 세계에 다가가는 대표 저작



마음과 세계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진화하는가
모든 것의 역사 화제의 신간
켄 윌버 | 조효남 옮김 | 664쪽 | 22,000원

삶, 종교,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혁명적인 통합 접근법
켄 윌버의 통합비전
켄 윌버 | 정창영 옮김 | 240쪽 | 13,500원 | 양장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에 대하여
늘 펼쳐지는 지금
켄 윌버의 지성과 달라이 라마의 따뜻함이 만났다. 새로운 영성 탐구법 '다이아몬드 어프로치' 국내 첫 안내서.
알마스 | 박인수 옮김 | 480쪽 | 17,800원



박진여 전생 리딩 이야기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원인도 해법도 전생을 가리킨다.
박진여 | 284쪽 | 12,800원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일 주 문



지도교사 신년하례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2월 14일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청년 · 학생 · 어린이회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성해당 추모다례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2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성해당 남거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정초산림 특별기도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2월 10~16일 경내 법왕루에서 '천수다라니 1천독, 정초산림 7일 특별기도'를 봉행했다.



원영 스님 초청 북콘서트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오후 1시 경내 북카페에서 '원영 스님과 함께하는 산사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2016년 정기총회

송묵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스님은 2월 24일 오후 4시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김대원 수필가는 2월 1일 저서 〈먼 산에 달이 오르네〉로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제34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불교문화재 관리 5년 계획 마련"

제주불교연합회장
탄해 성율 스님



전문 TF팀 구성 후 세미나 열어
각계 인사 의견 듣고, 계획 수립
영령천도법회 · 성보문화원 창립도

"2014년 9월 '도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발표돼 불상 보호누각에 대한 규모 및 보조금지원 등에 큰 제한이 생겼음에도 제주불교계는 한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모 사찰의 문화재수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문제가 불거지는 등 문화재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제주불교계의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제주불교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찰이 보유한 유 · 무형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장 탄해 성율 스님〈사진〉은 1월 말 열린 제주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신년계획을 밝혔다.

제주불교연합회는 '동산문화재 지침' 발표 당시 반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개월동안 대응하지 못했다. 지침에 따르면 입면상 전면부 칸수는 와불 최대 5×3칸, 좌불 및 입불상 최대 3×2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칸의 크기는 12자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문화재 보호가람 규모를 약 23.5평 이상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해 초 문화재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며 관련 지침을 폐기하도록 이끌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탄해 스님은 도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제주불교 유 · 무형문화재 현황을 파악,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탄해 스님은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제주불교계 문화재와 관련된 현안을 정리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님은 제주 4 · 3사건 영령 천도법회와 '제주성보문화원' 출범, 젊은 불자 포교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도 진력할 것을 밝혔다.

탄해 스님은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4 · 3사건이다. 이념의 극한 대립 속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원혼과 호국영령들의 화해를 위한 '수륙영령천도법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더불어 침체되고 있는 제주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난해 발기인 대회를 마친 '제주성보문화원'이 곧 창립할 예정"이라며 "제주불교 현안을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제주의 젊은 불자들을 사찰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제주불교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포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광진노인福, "만두로 행복 나눠요"

관내 48개 경로당서 설 행사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이하 광진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과 만두를 빚으며 설을 보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2월 2~5일 광진구 내 경로당 48개소에서 설맞이 명절행사 '행복나눔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만두를 빚고, 떡만둣국을 끓여 먹으며 화합과 친목도모를 이루고자 기획됐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열린선원, 합동차례 · 세알세배

설 당일 대웅전서 불교차례의식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인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2월 8일 대웅전에서 병신년 설맞이 합동차례 및 세알세배를 봉행했다.

이 행사는 1991년 선원장 법현 스님이 "차(茶)를 올려야 올바른 명절 차례(茶禮)"라는 주장에 따라 실시해온 것이다. 행사에 동참한 대중은 먼저 불보살님께 헌공하고 이어 신중퇴공을 한 뒤 합동차례를 올렸다.

헌공은 결계를 위해 초기경전인 〈장외경〉과 전후송을 독송하고, 지장헌공 후 수행과 건강 등을 축원했다. 특히 법현 스님이 직접 재구성한 불교차례의식에 따라 차례음식을 올리고, 세알세배를 했다.

이후 대중은 법현 스님에게 세배를, 스님은 대중에게 덕담을 했다. 스님은 "새해에는 정진을 잘하고, 복을 많이 지어 공덕을 쌓으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법련사, 군부대 '방생' 나선다

26일, 양주 26사단에 위문품 전달 예정

단순한 방생법회의 틀을 벗어나 군부대를 위문해 새로운 '방생'의 의미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2월 26일 경기도 양주 26사단에서 '군부대 위문 정초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법련사는 매년 정월 보름을 맞아 방생법회를 봉행해 왔는데 올해는 군부대를 방문, '인간방생'이라는 방생의 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날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비롯한 사내대중스님과 신도 100여 명은 26사단에 공양미와 폼클렌징,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찰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계 방생은 각 사찰별로 이뤄져 '자비사상'을 강조해왔지만 물고기 · 거북이 등의 방생이 주를 이루면서 생명존중 사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찰에서 시작한 '꽃 · 나무 심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친환경적인 방생이 시도되기 시작, 법련사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생의 의미를 찾고자 이번 방생법회를 마련했다.

법련사 측은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찰음식전문가와 함께 사찰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장병은 물론 직업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불교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련사는 정초방생 삼사순례를 위해 군부대 법당을 비롯해 인근 사찰인 양주 지장사와 파주 보광사도 순례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홍법복지법인, 고양시에 쌀 전달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일환



(사)홍법문화복지법인(이사장 정우)은 2월 10일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 대법당에서 '정초 신중 7일 기도' 입재 후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일환으로 자비나눔 쌀 10kg 200포대를 고양시에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강북노인福, 600명 떡국 무료제공

2월 4일 설맞이 특별행사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 이하 강북노인복지관)은 2월 4일 '한국야쿠르트 사랑의 떡국나누기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 약 600명을 대상 무료점심 떡국을 제공했다.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배식봉사 및 후식제공 등에 참여했다. 관장 소지 스님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본동福, 취약계층에 '설맞이 후원'

현대HCN 등 지역사회 기관 동참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월 30일, 2월 2~3일 '따뜻한 설맞이 자비나눔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과 학생들, 현대HCN 동작방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 지역본부 등이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떡국떡 · 쌀 · 사골곰탕 · 과일 · 새해편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종성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실현코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청동주조 40년 외길인생… “부처님 일이라 행복”



주조장인 송창일 명장은… 16세에 주물을 배우기 시작한 송 명장은 최기원 홍익대 교수에게 조각을 수학했다. 이후 천종사를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송 명장은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을 비롯,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 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신지식인 협회장상과 한민족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붓고 있는 송창일 명장



송 명장이 기대어 서있는 것이 그가 최초로 고안한 청동탱화다. 1984년 불교미술대전 출품 당시 파격적인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내 최고 청동불상 주조장인 송창일 명장

“뜨거운 쇳물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바뀌는 것에 매력을 느껴 이 길에 뛰어든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품 하나 하나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단단한 주물을 만드는 청동 주조. 청동은 천년을 가기에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청동불사가 이뤄졌다. 이러한 청동불사의 명맥이 끊긴 것은 조선시대. 그로부터 수백년이 지나 그 맥을 다시 잇고자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송창일 명장(62)이다. 청동주조 명장인 송창일 명장은 특히 청동 불상을 제작 · 복원하는데 국내 제일로 평가받고 있다. 16세 때 청동 주조의 세계에 입문해 40여 년간 청동불상 만을 바라본 송 명장은 청동불 주조를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1300도의 불과 씨름한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한 ‘천종사’에서 송창일 명장을 만나 청동불사에 대한 그의 원력을 들어보았다.

하늘이 허락한 작업…“부처님 가피일 뿐”

2월 5일 곤지암의 ‘천종사’에는 크레인으로 불상을 옮기는 소리와 주물작업 전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천종사’는 송창일 명장의 작업장이다.

송창일 명장은 “대형 청동불은 말 그대로 하늘이 허락해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수십키로가 넘는 뜨거운 쇳물이 주물 작업장까지 옮겨질 때면 송 명장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된다. 40년 넘은 장인인 송창일 명장이 만들어도 조그만 실수에도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창일 명장은 작업실 내 사무실에 법당을 차려놓고 아침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작업을 한다. 송 명장과 30여 년을 함께 일해 온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액운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범종과 불상 불사 중 주물을 붓기 전에는 바깥출입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을 조성하기 때문에 제 자식을 보살피는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동불사는 1000년이 넘게 보존되기에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죠. 또 사찰에서 불자님들의 경배 대상이 되기에 더욱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이 불교로 꽃펴

송창일 명장은 이 분야에서 조각기술과 함께 주물기술, 또 이를 다듬는 개금기술도 함께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장인이다. 이런 기술을 갖기 까지 역경의 세월과 이를 이겨낸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창일 명장은 어려서부터 신심깊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녔다. 대목장인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며 그는 16세에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상경했다. 먹고살길이 막막하던 시절 그에게 남은 것이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넌지시 배운 손기술 밖에 없었다.

송 명장은 최기원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 그 밑에서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며 2년간 조각기술을 배웠다. 이어 이종옥 선생에게서 주물과 도금모 형제작 등의 기술을 익혔다.

“안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누드모델을 조각하는 조각가들을 돕는 등 여러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곁눈으로 배운 기술이 제 밑바탕이 됐죠. 그러다 주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동상, 연세대 독수리상 등 불교 관련 주조가 아니더라도 국내 큰 작품들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전통방식으로 불상을 다루는 선생님을 만나 10여년 있으며 국보 모조를 다루게 됐고, 이를 인연으로 불교 주조에도 나서게 됐죠.”

국내 다수의 청동불상 제작해

다양한 기술을 익힌 뒤 송 명장은 직접 주물업체 천종사를 1984년 창업했다. 이에 앞서 1979년 송 명장은 미국 카터 대통령 방한 당시 국보83호인 미륵 반가사유상의 청동모조품을 만들었다. 미국 인사들에게 선물된 이 미륵 반가사유상은 500여 점이 더 만들어져 대한항공 해외지사 입구에 비치됐다. 이후 부산 홍법사의 국내 최대 청동 아미타대불, 천안 광덕사 아미타불, 고흥 정각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상주 연수암 11면 관세음보살입불, 고성 문수암 약사여래불, 제주 보문사 약사여래불 등 수많은 청동불상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됐다.

고난 딛고 40년 청동불사 이어와

홀홀단신 상경, 조각 · 주물 · 개금 배워

부산 홍법사 대불 등 사찰 청동불 제작

한국문화 알리는 회향의 삶 꿈꿔

‘주철장’에 불상주조 분야 지정 추진

제주 청동불상 박물관 건립 서원 세워

여기에 서울 전쟁기념관 작품 주조 등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주조물 상당수가 그의 손으로 만들어 국내 최대 동상조각인 여수 자산공원 충무공 동상도 그의 작품이다. 송 명장은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대상(통일부 장관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송 명장은 특히 청동탱화라는 불교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열기도 했다. 1984년 불교미술대전에 출품한 청동탱화는 심사기준이 없어 제외되는 등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팔상성도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를 갖춘 청동탱화와 불상을 조각해 넣은 범종 등이 다양한 사찰불사에 활용되고 있다.

“주조물에서는 선조들이 남긴 미적 감각이 되살아 납니다. 선조들의 신심과 기술을 다시 재연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 남은 후손으로서의 과제입니다.”

“주조분야 장인지정 세분화가 필요”

수많은 작품 중 그의 대표작은 경기도 하남역사박물관에 비치된 보물 제332호 철불상 복원품이 꼽힌다. 이 고려철불 복원은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전통방식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하남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철불상 재현은 현대방식과 전통방식을 가미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의뢰 받기 전 재현을 시도했던 분들이 규모가 워낙 크고, 톤수도 엄청나서 주물을 한 번에 붓지 않고, 따로따로 부어서 붙이려 했습니다. 그 것을 제가 전통방법과 현대방법을 가미해서 하나로 부어 성공한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들이 한번에 쇳물을 부어 복원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송 명장의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철불 중에서 저렇게 큰 사이즈는 최초일 겁니다. 앞으로 저런 작품을 얼마나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전통방식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 명장은 현재 단 하나 뿐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인 ‘주철장’ 분야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주철장은 범종 제작 분야의 단 1명만이 지정돼 있다. 대목장과 소목장 등에서 세분화돼있는 목가공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중요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청동불상을 만드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저 많은 신라와 고려철불들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철불 제조도 전통기술이 전해져 오고 있고, 그 문화를 지켜가야 합니다. 불상에 관련된 주철장이 없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제주에 박물관 건립으로 회향

그는 현재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청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다양한 국내 국보와 보물을 모사한 청동작품을 전시하고 싶어한다.

“국보와 보물 모사를 해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말이죠.”

특히 그가 구상하고 있는 박물관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천안관음보살’의 형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법신 아래에는 신행활동을 위한 법당과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등도 들어선다.

“40여년 부처님 일을 하며 받은 가피를 회향해야지요. 청동부처님을 활용한 박물관이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를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제 남은 꿈입니다.” 경기도 광주=노덕현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 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과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해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 · 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 · 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 · 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겁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신

마곡사, 사천왕재 및 정초기도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2월 10일 사천왕문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병신년 새해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이어 대광보전에서 정초기도를 입재했다. 입재식에서 주지 원경 스님은 "정초기도는 1년 동안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다.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부처님 같은 마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며 "이를 통해 얻은 기쁨과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법주사, 입춘기도 회향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2월 4일 입춘을 맞아 대웅보전에서 7일간 봉행한 입춘기도를 회향했다. 이날 재무국장 정덕 스님은 '입춘의 의미와 입춘을 맞이하는 자세'를 주제로 법문했다. 회향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이후 삼재불공 회향을 위해 소지장으로 이동, 삼재지 소지를 하며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윤호섭 기자

고창노인福, 경로당활성화 사업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최근 고창군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6년 노인연계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경로당활성화 사업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증진을 위한 태극기공, 건강체조, 레크댄스 프로그램과 여가지원을 위한 노래교실, 음악치료프로그램, 치매 예방프로그램 등이다.

관장 대원 스님은 "취약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할매 밥집서 노년의 행복 찾았어요"

부산금정시니어클럽 '착한 할매 밥집'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평생 가정을 지켜왔던 주부들의 일자리는 전무한 상황. 이런 이들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복지법인범어 부산금정시니어클럽(관장 정순화)이 문을 연 '착한 할매 밥집'이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위치한 '착한 할매 밥집'은 약 20평가량의 공간에 4인 테이블 10여개가 소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장소는 아담하지만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은 총 16명. 작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근무자들과 나누고 있다.

또한 착한 할매 밥집은 일자리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신청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만 60세 이상 신체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도 하루 5시간, 월 평균 7번 출근으로 맞춰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큰 부담이 없도록 배려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주정규(70)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겁다.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가게가 놀이터처럼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 매우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화예(73) 어르신은 "집에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무료한데 이곳에서 여러 손님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니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누구나 일자리 참여
수익금 전액 어르신들과 나누고
신선한 식자재로 지역 호응 높아
노인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회자

이성호 부산시니어클럽 팀장은 "고령화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보살님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곳은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음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착한 할매 밥집은 음식 구성에서도 가게 이름만큼이나 착하다. 모든 채소류는 범어사가 운영하는 농장과 부산 월평에서 공수한다. 대부분 부산금정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은 이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다. 가게와 위치가 가까워 재료의 신선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적정한 값으로 식자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밥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두부요리인데 주재료인 콩을 직접 공수해 두부제작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고객들의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성호 팀장은 "모든 재료가 국산이다. 또한 두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간수된 소금과 국산 콩만 이용한다"며 "모든 재료가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어서 여러 의미로 착한 밥집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착한 할매 밥집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서며 사회환원사업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가게 문을 연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어머님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안정화되면 사회 환원 활동을 위해 직접 제작한 두부를 소외 이웃에 나누고,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착한 할매 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준비하며 활짝 웃고 있다.

부산 시선원, K-MBSR 기초교육생 모집

명상치유전문가 직접 지도

부산 해운대 명상교육전문 시선원(선원장 우현)이 K-MBSR 프로그램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의 일정은 3월 13일~4월 24일 격주 일요일이며 오전, 오후로 나눠 총 6시간 동안 실참 및 수업을 진행한다.

(사)한국명상학회 후원으로 명상치유전문가가 지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K-MBSR 명상의 이해 △심신의학기본원리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법 △명상치유의 과학적 원리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기 △명상실습과 심신이완법 △바디스캔(기본 · 고급) △호흡명상(기본 · 고급) △자애명상(기본 · 고급) △마음챙김 명상요가(기본 · 고급) 등 다양한 이론 수업과 실참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공식명상(바디스캔, 호흡명상, 정좌명상, 하타요가)과 비공식명상(먹기명상, 걷기명상, 자애명상, 용서명상) 및 수련 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부산 해운대 시선원에서 진행하는 MBSR 명상 진행 모습.

강사로는 장현갑 서울대 교수(K-MBSR 개발자), 조원경 원장(한국명상학회 이사), 윤병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가 나선다.

시선원 우현 법사는 "K-MBSR은 사념처(신수심법) 명상의 핵심을 현대인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과 연구를 통해 설계된 세계적으로 공인된 명상치유 프로그램이다"며 "현대인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마음챙김명상 훈련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과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동명대 선수행학교 5기 수강생 모집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수행 학교'.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일반인을 위한 '선수행학교'를 개강한다.

개강일은 3월 9일이며 총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열리는 선수행학교는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동명관 4층에서 열린다. 수업료는 10만원.

선원장 수진 스님은 "선을 통해 우리의 심신을 회복하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5기를 맞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선수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051)629-3582~4 하성미 기자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10.5㎝)(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장 존귀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㊱ 관음보살의 자비심에 대한 고찰



그림 · 최주현

전 회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볼까요?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푸른 바다의 좁쌀 한 톨'(滄海一粟) 같고, '번갯불이나 부싯돌이 부딪쳐 나는 반짝임'(電光石火)처럼 짧은 우리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그런 커다란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장자(莊子)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장자 책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 이름이 곤(鯤)이지요. 그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네요. 그 물고기가 변하여 붕(鵬)이라는 새가 되죠. 그 새의 크기도 어마어마. 몇 천리가 되는지 역시 모른답니다. 이 붕새가 남쪽 바다로 옮기려 구만리를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뱁새가 웃지요. "나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기도 힘든데 구만리를 날아서 뭐하자는 거야?"

이런 장자의 이야기에서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도 나왔고, "대붕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리요!"라는 말도 나오지요. 그 붕새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을 어떨까요? 참으로 작은 것들이 꼬무락거리는 모습이 하찮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장자는 붕새처럼 높고도 큰 이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붕새를 이상형으로 여기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왜냐구요? 붕새처럼 큰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뱁새처럼 작기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붕새는 크기 때문에 또 얼마나 불편한가요? 머무르는 곳만 해도 어지간히 넓지 않아서는 그 몸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뱁새처럼 폴짝 날아오를 수로 없어요. 그 큰 몸을 띄우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예비활주까지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각각 자기 분수에 만족할 때 각자의 행복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장자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붕이 단지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대붕처럼 훌쩍 뛰어 이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뜻을 품지 않으면 이 일상의 참된 의미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점에 빠져서 아옹다옹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부질없는 것 같은 짓을 하염없이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초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초월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이냐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삶에 절절 매면서, 끝없는 탐착에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필요한데, 앞에서 말한 대붕과 같은 초월적인 관점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세요. 밤에 가면 더 좋겠군요.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곳마다 나와 비슷하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긋이 관조하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뭔가 자기의 삶을 남의 눈으로 보는 듯한, 좀 허무하면서도 초연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여 "아! 나나 너나 다 그저 그런 작디작고도 덧없는 존재들이구나!"하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유한함 속에 무한을 담아 나가는 의미 있는 불퇴전의 삶을 살아가보자는 겁니다. 한 차원 높은 눈으로 삶을 관조하였기에 오히려 큰 자세로 이 삶을 꾸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 내려 볼 때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대붕과 같은 아득한 상공에서 우리 삶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저 북극성 쯤 되는 곳에서 본다면요? 하하! 점점 아득하게 나가면 좀 겁나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숨 한번 크게 쉬고, 가슴을 펴고, 좀 초연한 마음으로 내 삶을 관조하면 된다구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쉬 갖기 힘들기에 대붕과 같은 거창한 비유를 드는 것이지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님께서야 말로 바로 상근기요, 대근기이십니다.

진원대선의 '소매 속에 세상을 쓸어 담는' 신통한 술법을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다시 한 번 복습해볼까요? "소매 속 세상이 크기도 하고, 표주박 속 세월이 길기도 하여라!" 이 한마디 말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진원대선과 같은 위대한 경지를 이룬 분들에게는 이 세상 전체를 소매 속에 넣고도 넉넉하게 여유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런 큰 경지를 가진 분 앞에서 손오공의 재주도 소용없습니다. 현장법사라는, 신통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애물단지(?)가 있는 이상 바로 바로 잡혀올 수밖에요.

그런데 진원대선이 잡아오기는 했지만, 손오공을 다루기는 또 어렵네요. 손오공은 천궁에서 태상노군의 단약 만드는 화로 속에서도 버틴 몸이 거든요. 매를 쳐도, 기름에 삶아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현장법사가 손오공의 아킬레스건이네요. 손오공으로 안되니까 삼장법사를 때리고 삶으려 하니, 그건 손오공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큰소리를 치고, 인삼과 나무 살려 내겠다고 나섭니다. 현장법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인질이 되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인삼과 나무가 완전히 비보통(非普通) 초특별(超特別) 나무네요. 여러 유명한 신선들을 두루 찾아가서 방도를 구해도 길이 없다는군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이 나무 살리지 못하면 서유기가 여기서 끝날 판이네요. 그렇게 되어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때 구원투수로 등장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군요. 바로 보살님! 그 가운데 서유기에 고정 구원투수를 담당하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죠. 손오공이 이 신선 저 신선 찾다 보니 결국 관세음보살 계신 보타낙가산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불교의 처음과 끝은 자비심
불자 자비증장 기회 가져야
"자비행은 전법행으로 이어져"

여기서 서유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뛰어나다는 신선들도 손을 못쓰는, 뿌리째 뽑힌 인삼과! 그것을 관세음보살은 살려 내십니다. '신선보다 보살'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겠지요. 서유기 전체가 불교를 가장 앞세우는 작품이니까요. 손오공도 결국 부처님 힘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해서는 서유기를 읽는 재미가 없겠지요? 관세음보살의 어떤 점이 모슨 신선들을 넘어서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무엇일가요?

삼쾌선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이니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상징이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모든 신통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은 태상노군의 단로(丹爐) 속에서 거의 숯덩이 수준이 된 버들가지도 살려내는 위대한 힘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한줄기 희망의 빛을 틔우는 위대한 힘,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살의 자비심에 대해 찬탄하며, 그 끝없는 가피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어보시면 관세음보살의 그 대자대비한 가피력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지요? "내가 만일 칼산 지옥가면 칼산 저절로 꺾여지고, 내가 만일 화탕지옥 가면 화탕 저절로 마르리라!"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가 그러하기에, 관세음보살에 기도하고 찬탄하는 우리 행자들은 그 대자대비의 한 자락을 우리 몸에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 가운데 하나의 손이고자, 천개의 눈 가운데 하나의 눈이고자!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자비의 발원이 큰 깨달음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냅니다. 지혜가 자비를 일으켜내고 자비가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 없는 자비 없고, 자비 없는 지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바로 대자비가 원동력이 됩니다. 쪼잔하게 자신의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존재, 결코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 잘 아시지요? 위없는 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다구요?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에 머물며,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하지요? 사홍서원의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아닌가요? 이런 것들 모두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비심이야말로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 말로 보리심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 자비심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서유기에서는 자비심의 화신으로 관세음보살이 나오시고, 그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거의 숯이 된 버들가지도 살려내는 위대한 힘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요오~. 우리 현실의 불교는 너무 자비심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저 깨달음을 강조하거나, 기복에 매달리거나, 그러면서 정작 자비행에는 좀 등한하지 않은가 싶네요.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자비가 없으면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수행을 하시려면 큰 자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에 올바른 수행 풍토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관세음보살의 등장으로 인삼과 사건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떨어졌던 인삼과까지 주렁주렁 다시 열리고, 관세음보살 방문 기념으로 인삼과 파티도 열리고, 약속대로 진원대선과 손오공은 결의형제를 맺고…. 기타등등 기타등등. 그래서 서유기도 계속 이어지네요. 인삼과 먹고 힘낸 일행들 더욱 기운차게! 그런데 인삼과 먹어 엄청난 수명도 얻고 기운차게 출발한 것은 좋은데, 현장법사를 노리는 요괴들은 더더욱 많아지고 극성스럽게 덤비게 되네요. 본래 당나라의 성승은 요괴들이 노리는 보양식(?)이었는데, 인삼과까지 먹어 완전 비보통, 초특별 보양식이 되었으니까요. 힘나서 가는 만큼 난관도 커지네요. 이걸 도고마장(道高魔長) - "도가 높아지면 마군이도 자란다"고 하던가요? 더 세진 요괴들, 힘차게 물리치는 이야기…. 기대하세요.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쫀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불교미술, 알기 쉽게 배워볼까

홍익대 평생교육원, 3월 2일부터 불교미술 강좌

매주 화요일, 12주 동안 진행

고즈넉한 산사는 불교신자들에겐 물론이고, 일상에 치이는 현대인들에게도 평온한 안식을 선물한다. 그런 사찰에는 불상과 탑을 비롯해 신앙을 넘어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산재하고 있다. 불교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과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 강좌가 열린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에서는 불교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 강사는 불교미술 전문가인 이승희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지난 2014년 2학기 신설된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불교신자 및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은 "불교문화재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강의 의도를 설명했다.

강의 구성도 알차다. 가장 먼저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인도와 서역에서 부처님의 일생이 미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살펴본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찬란한 한국의 문화유산인 고려 불화를 시작으로 사찰 내 탑, 석등 및 다리와 연못이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배운다. 또 불교의 도상이 뜻하는 바를 한 가지씩 배워보며, 부처님의 교리를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이 상주하는 사찰의 전각 등 사찰 곳곳에 구현된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찰 공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괘불과 불교의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도달하는 극락정토 세계의 조형과 상징에 관한 내용은 강의에 유익함과 흥미를 더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는 오는 3월 2일 개강하며,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개강 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2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은 "이번 수업을 통해 불교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또한 불교미술 · 문화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02)3668-3745 신성민 기자

'치유의 빛'을 머금은 만다라

만다라연구협, 20일까지 '여행자들' 전시회

만다라(曼荼羅)우주 법계의 온갖 진리를 망라한 진수(眞髓)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이다. 진리를 표현하는 만다라는 최근에는 미술 심리치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만다라가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체계를 열어준다는 연구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미술 심리치료를 위해 만다라를 연구하는 단체가 자신이 그린 만다라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오는 2월 20일까지 부산광영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4회 만다라 전시회 '여행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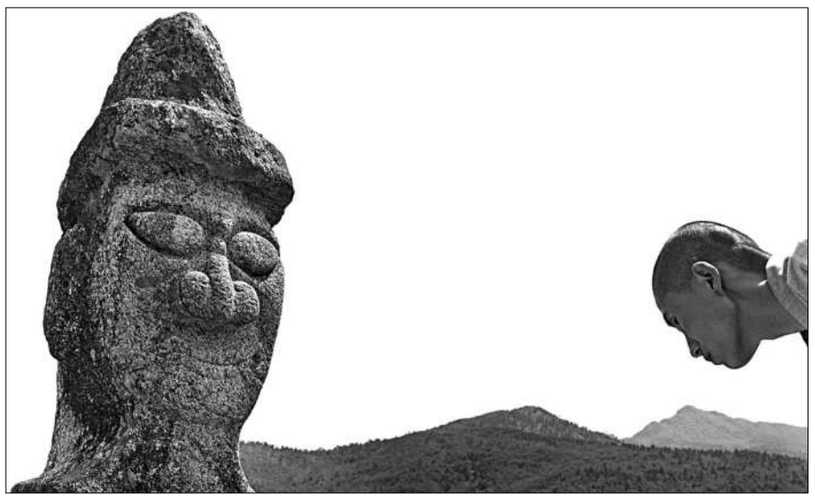
동아대 평생교육원에서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는 넌 1회 회원전을 열어 연구한 만다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전시되는 40여



한국만다라연구협회 회원전 '여행자'에 전시회는 김유진 지도교수의 작품 '천 개의 태양'.

작품은 일반적인 만다라 도상이라기보다 미술치료에 적합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만다라 미술치료는 원상의 공간에 명상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치유하고 자아를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사진계의 선승'이라고 평가받는 육명심 작가의 연작 '장승'의 '전라북도 남원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1986. 10. 11, 사진 왼쪽)'와 연작 '백민'의 '전라남도 영암(1984, 사진 오른쪽)'.

찰나에 담아낸 우리네 사람들의 삶

국립현대미술관, 육명심 작가 국내 최초 회고전

"결국 사진은 '너'와 '나'의 상대적인 만남이며 이 단계를 넘어서 서로간의 내면적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다." 〈육명심(2015, 열화당)〉中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독실한 불자인 육명심(83)을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다. 리얼리즘과 살롱 사진으로 양분된 1960년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소통과 만남의 미학으로 승화한 육 작가의 사진은 이후 '백민' '장승' 등 '우리 것 3부작'으로 이어진다. 우리네 민중의 삶을 애잔히 포착한 그의 작품들은 마치 수행승의 치열한 구도와 같다. 그래서 지자(知者)들은 육 작가를 '사진계의 선승'이라고 부른다.

33세의 나이인 1964년 늦깎이로 사진에 입문한 육명심 작가는 지난해 작가 활동 50년을 맞았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직무대리 김정배)이 오는 6월 6일 과천관에서 개최하는 '육명심' 회고전은 그의 사진 인생 50년을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이다.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인 이번 전시에는 그 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초기사진 30여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우리 것 삼부작'

장승 등 5개 연작 190점 선봬
50년 작가 인생 총망라 '눈길'
현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
6월 6일까지 과천관서 진행

인 '백민' '검은 모살뜸' '장승'과 육명심 작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예술가의 초상' 연작까지 총 5개 연작, 190여점의 작품도 소개된다.

육명심 작가는 한국 사진사에서 예술사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던 1960년대에 처음 사진을 시작했다. 작가는 당시 국내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리얼리즘 경향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는 그의 초기의 사진 작업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사물과 교감하는 작가의 내면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담하게 트리밍(Trimming,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조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조작)되거나 화면 가운데가 텅 빈 장면들 등은 같은 시기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이었다.

이를 두고 평단은 "단순히 리얼리티에 대한 자각을 넘어 작가가 느끼는 삶에 대한 비애까지 표현해내는 진하고 깊은 '진실에 가까운 기록성'"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이론가이자 교육자로서 주장해 온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사진에 찍히는 대상과의 소통"이라는 신념이 실제로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실제 육명심 작가의 연작 '백민'에 대해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사진에는)무당, 스님, 촌로들을 비롯해 소와 개들도 등장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풍경과 짐승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살다 죽어 갈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라며 "그 모든 대상들과 전적으로 눈을 맞춰서 그들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찍은 사진들이며, 이는 깊은 시각적 교감이자 편안한 눈 맞춤이다. 그로 인해 사진은 그만큼 깊어지고 새로운 경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회고전은 지난 50년간 한국 사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목도해 온 작가 육명심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 가장 한국적인 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188-60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비달마불교에서 본 시간과 존재론

황정일 실장, 겐쥰 著 〈불교 시간론〉 번역 발간

불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에 대한 철학적 반성 없이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불교사상사에서 가장 잘 구현한 불교가 바로 아비달마불교이다.

아비달마불교가 추구한 것은 존재에 대한 이해, 즉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설일체유부(유부)'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 즉 경험세계에 대한 탐구를 수행의 선행조건으로 삼았던 것이다. 유부는 '식유필경(識有必境)'에 근거해서 시간과 존재의 문제를 분석 및 정리했다.

아비달마 불교의 시간과 존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담은 일본의 불교 철학자인 사사키 겐쥰(1915~2010)의 〈불교 시간론〉이 번역 · 출간됐다.

번역은 황정일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이 맡았다.

책은 제1편 시간론과 제2편 존재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간론에서 저자는 시간에 관한 동 · 서양의 다양한 시간론을 제시하면서 불교적 시간론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나아가 불교 시간론에 있어서도 남전과 북전 아비달마불교 시간론의 차이를 살피고 남북전 아비달마불교의 시간론이 대승불교에 어떻게 전승되고 이해되었는가를 또는 어떻게 비판되었는가를 논구하고 있다.

존재론에서는 제1편 시간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부의 존재체계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세친이 〈구사론〉을 통해 유부의 사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통 유부논사인 중현의 〈순정리론〉을 통해 재반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저자는 제2편 존재론을 통해, 유부의 삼세실유 · 법체항유가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론과 무상론에 위배되지 않음을 탁월한 식견으로 논하고 있다.

역자인 황정일 실장은 "시간과 존재란 모든 철학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쟁점이고 불교 역시 아비달마불교를 기점으로 하여,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을 벌여 왔다"면서 "이 책은 불교철학이나 그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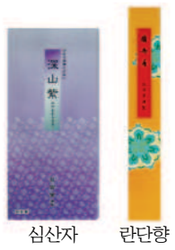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심산자

란단향

일본 직수입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본각의 두 가지 모습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시각(始覺)이 완성되면 무념의 경지를 얻어 본각에 일치된다는 것이 기신론의 주장이다. 무념(無念)을 얻었을 때 유념(有念)의 생(生), 주(住), 이(異), 멸(滅) 사상(四相)을 안다는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무념의 지혜를 얻어야만 망념의 정체를 안다는 것이다.

비록 중생이 오염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본각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탁월한 기능이 나타난다. 하나는 밝고 깨끗한 본성 그대로의 지혜의 모습이 수행을 통한 법력으로 생멸이 야기되는 심식(心識)의 상태를 없애고 망념이 계속되는 것이 끊어져 본래청정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수행의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 행동화될 때 나타나게 된다.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이 본래 깨끗하여 물체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지정상(智淨相)'이며, 먼지가 끼었을 경우 이를 털어내고 닦는 것이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이다.

일체 마음에 생멸이 일어난 심식의 상태는 비록 무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상태가 깨달음의 본성을 떠나지 않아서 부수어지지 않으며 동시에 부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하였다. 바다의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먼지가 끼면 보이지 않듯이
번뇌, 본각의 비춤을 숨긴다

물이 파도가 되어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물과 파도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물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는 없어지지만 적셔주는 물의 수분성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처럼 중생의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마음과 무명이 둘 다 독립된 형상이 없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명이 없어지면 마음이 움직이는 상속이 없어질지언정 지혜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심식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의 의식활동은 각성(覺性)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로운 모습(智淨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식활동이 본래의 지혜로운 상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중생의 본래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나 깨끗하고 맑은 마음과 무명의 바람이 서로 각각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얽혀있을 뿐 관계 이전의 깨끗하고 맑은 지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각의 지혜로운 모습이다.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활동의 모습은 깨끗한 지혜의 모습이 일으키는 작용이다. 다시 말해 지정상(智淨相)은 체(體)요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은 용(用)이다. 체는 근본지(根本智)에 갖추어진 자리(自利)가 되고 용은 후득지(後得智)로 이타(利他)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마치 하늘의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어두워 나타나지 않지만 구름이 없어지면 밝게 비치게 되고 또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그림자기 비치어 수월(水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체는 부처님의 법신(法身)인 자수용신(自受用身)이 되고, 용은 응신(應身)인 타수용신(他受用身)이 된다. 체에서 용이 나와 창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상황의 전개,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본각을 수염본각(隨染本覺)과 성정본각(性淨本覺)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수염본각 곧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본각의 기능과 작용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성품이 깨끗한 본래의 깨달음이 네 가지 거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깨달음 그 자체의 모습은 네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크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각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대로 공한 면을 거울로 비유하고(如實空鏡) 원인에서 훈습되는 면을 거울(因薰習鏡)에 비유했다. 그리고 제법의 속박을 벗어난 난 면을 거울에 비유하고(法出離鏡) 또 조건에서 훈습되는 면을 거울에 비유했다.(緣薰習鏡)

이러한 네 가지 비유는 결국 중생의 마음이 거울과 같다는 말이다. 다만 거울에 먼지가 끼면 비추는 성능이 발휘되지 않듯이 번뇌가 있으면 성정본각의 거울도 비춤이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大衆,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곳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⑦ 바라밀의 의미

此是智者說 施能到彼岸
(차시지자설 시능도피안)
若一到彼岸 諸度悉具足
(약일도피안 제도실구족)
波羅蜜義者 名為和集聲
(바라밀의자 명위화집성)
譬如多人處 名之為大眾
(비여다인처 명지위대중)
菩提之種子 能成大智果
(보리지종자 능성대지과)
一切眾 事具 莫不由施成
(일체중사구 막불유시성)

번역

이것은 지혜로운 이의 설법이거니와, 보시는 능히 저 언덕에 이르게 하며, 만약 한 번 저 언덕에 이르면, 모든 법을 만족하게 갖추게 됩니다.

바라밀(波羅蜜)의 의미는 이름하여 조화로운 소리가 모였다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이름하여 대중(大衆)이라고 합니다.

보리의 종자는 능히 큰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나니, 일체의 대중이 섬기는 마음만 갖춰지면, 보시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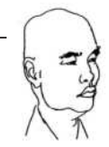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일러 도피안(到彼岸)이라고 하거니와, 바라밀(波羅蜜)을 의미한다. 〈법집요송경(法集要頌經)〉 유위품(有爲品)에는 산스트리트어로 파라가(pāra-ga)라고 발음되고, 파라미따(pāramitā)라고도 한다. 한역하여 바라밀다(波羅密多)로 읽는다. 따라서 예불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바라밀다심경〉이 바로 '피안(彼岸)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라는 뜻이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라밀(波羅密)'을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의 반야바라밀의 의미는 '응당 두 가지 모습으로 살피지 않는 것이다(般若波羅蜜義者 : 不應以二相觀)'라고 하였다. 즉 이분법적인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간략히 풀어 설명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머무는 것도 아니며,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실재하는 것도 아니며, 실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합하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다…, 법도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등등(非有相非無相, 不入不出, 不增不損, 不垢不淨, 不生不滅, 不取不捨, 不住非不住, 非實非虛, 非合非散, 非著非不著, 非因非不因, 非法非不法, 非如非不如, 非實際非不實際)'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념을 벗어난 소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제바보살은 '바라밀'이라고 해석하였고,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조화로운 소리는 곧 지혜의 종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혜의 종자를 갖춘 일체의 대중이 모이고, 일체의 대중이 섬기는 마음만 낸다면 온 세상에 보시를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강변하는 것이다.

보시야말로 저 언덕에 이르는 진정한 지혜며, 모든 법을 만족하게 갖추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부처님이 온갖 법문을 설하신 대의(大義)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둘이 아닌 하나

산에 살면 바다가 그립고 바다에 살면 산이 그리워진다. 더운 나라에 살면 추운 나라에 가고 싶고 추운 나라에 살면 더운 나라에 가고 싶다. 홀수일 때는 짝수가 행복해 보이고 짝수일 때는 홀수가 편안해 보인다.

겨울에는 여름 바캉스를 떠올리고 여름에는 겨울의 스키장 풍경을 머리에 담는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과 권태를 느끼며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다.

누구에게나 바람 기운이 본능적 욕구로 남아있어 머물지 않고 떠나려 한다. 만족은 언제나 몇 걸음 앞에 있고 헐떡임과 흔들림 속에서 사람의 키는 자라 상대적 빈곤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한다.

성경에도 박혀 있듯 양(羊)이 아흔아홉 마리에 이르렀는데도 한 마리를 더하여 백 마리를 채우려 한다. 먹거리와 짝짓기와 잠에 대한 본능만이

행복과 불행, 속박과 자유는 '不二'
먼저 용서 · 배려해야 평화 찾아온다

욕구가 아니다. 티내고 뽐내고 으스대며 우쭐해하는 치졸함, 상대를 무시하고 폄하하며 깎아내리는 고질병, 꾸미고 조작하며 돋보이려하는 이중성, 시기와 질투, 음해와 음험함,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누구나 빛과 어둠사이에서 윤회를 거듭한다. 천사와 악마는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킬과 하이드가 둘이 아닌 한 몸이듯이.

사람은 동물이다. 다만 웃을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법과 질서, 예의를 존중하는, 글씨와 언어로 소통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앞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빛과 어둠은 둘인 듯 보이지만 둘이 아닌 하나이다. 행복과 불행, 속박과 자유, 다툼과 화해도 곰곰이 살펴보면 둘이 아닌 하나이다.

대화의 단절이 사람사이에 벽을 만들고 이해의 결핍에서 다툼이 비롯되는 것이다. 입장 바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면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남긴다는 세 마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를 죽기 전에 살아서 그것도 하루에도 몇 차례 틈 날 때 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족이 평화로워야 이웃과 사회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도 사람의 행복, 자유, 평화의 지킴이 역할에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수행이란 내려놓는 것, 비우고 버리는 것,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 없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요 나의 존재가 선택된 승리자이며 오늘의 참 주인공임을 깊이 자각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먹나팔이라도 불며 자신 충만하게 살 일이다.

산에 살더라도 바람소리를 파도소리로 알고 바다에 살더라도 바다의 고요함을 산속의 고요함으로 마음 바꾸며 살 일이다. 지나고 보면 세상사 온갖 일이 부질없는 허무의 그림자임을 누구나 느낄 것이다. 토라지고 등 돌리며 미워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배암의 허물처럼 부끄러움으로 남게 된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빛과 행복, 자유를 불려온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살아서 남기고 또 건네야 하는 생활언어인 것이다. 살다보면 미운 사람 한 명쯤은 언제든 어느 곳이든 끼어있기 마련이다. 다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색안경을 벗고 보면 누구나 나의 형제자매요 이웃사촌이다. 욕하는 것도 버릇이지만 칭찬하는 것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나타나고 행복과 만족은 느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남도 좋아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함이 없는 행복과 자유,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칭찬하고 배려해야 한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3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오후 2시 ~ 3시 10분)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오후 3시 30분 ~ 5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3월 9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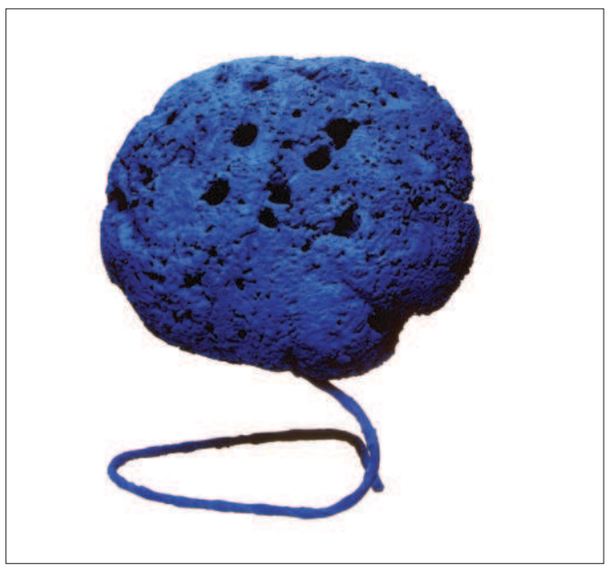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靑으로 禪 표현… 예술하는 구도자

禪과 현대미술
③ 이브 클라인(Yves Klein)

"Ich mochte das Nichts nicht, und so lernte ich die Leere kennen, die tiefe Leere, diese Tiefen des Blau." - Yves Klein(1956)

"무(無)는 무(無)가 아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空)을 배웠으며, 공(空)의 깊이는 바로 청색이다." - 이브 클라인(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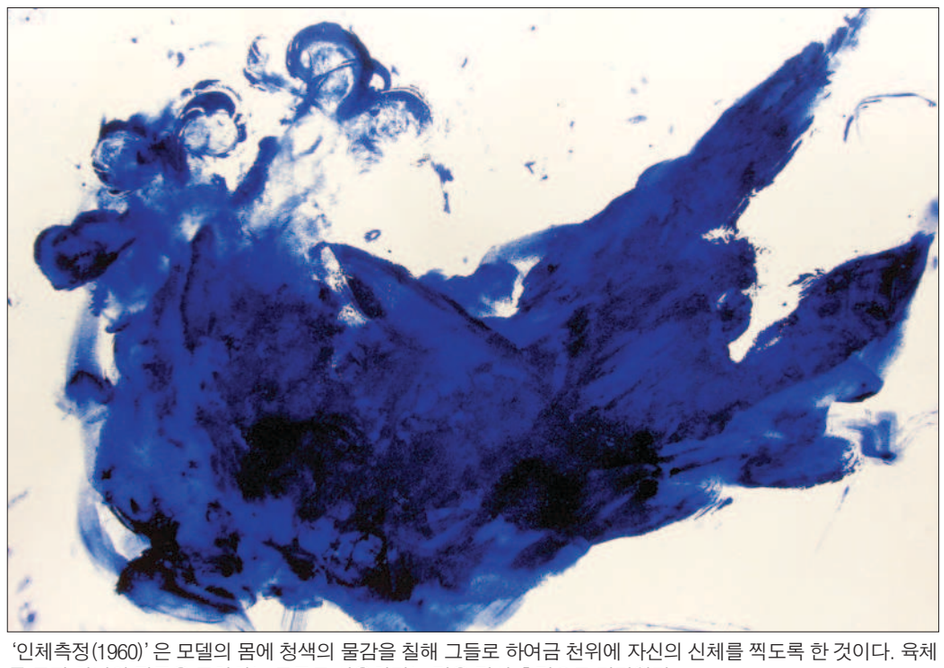


이브 클라인의 작품 'Blaue Schwammskluptur(1961)' 버려진 스펀지를 새롭게 조형하고 자신의 청색 'IKB' 를 입혔다. 작은 변화로 인한 인식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유도 배우면서 불교에 심취
禪 수행하며 예술가의 길로
유럽 등 禪風 확대 큰 공헌

청색을 깨달음의 색으로 설정
자신만의 청색 'IKB' 만들기도

청색 담은 파격 · 격외 작품들
자기 정체성 · 내면 변화 표현
'깨달음에 이르는 예술' 지향



'인체측정(1960)' 은 모델의 몸에 청색의 물감을 칠해 그들로 하여금 천위에 자신의 신체를 찍도록 한 것이다. 육체를 그저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상의 삶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모두 청색으로 색칠한다. 청색을 깨달음의 색으로 설정하여 모든 사물을 청색으로 색칠하기 시작한 이브 클라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색칠해야할 대상처럼 보이는 것 같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이모의 집에 머물며 늘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시간을 보내던 이브 클라인(Yves Klerin, 1928~1962, 프랑스)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점을 고등학교 시절 시작한 유도를 배우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브 클라인에게 유도는 새로운 삶의 돌파구였다. 일본인 유도 스승을 따라 일본에 여행을 가서 배운 선(禪)은 그가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였다.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선에 심취하였다. 그가 선을 배우고 처음으로 한 것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유도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좋은 유도선수가 되고자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예술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알리고자 하였다.

모든 물체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선사의 가르침은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으나 점차 수용하여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에 청색을 칠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군청색물감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느낌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화학자와 연구하여 새로운 자신의 청색을 만들어 낸다.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 이하 IKB)' 라고 공식 명명된 이 청색은 이브 클라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색이 되었다.

클라인에게 청색은 인간과 깨달음의 만남이다.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가장 청정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선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는 가장 청정하면서 가장 존귀한 색을 청색으로 본 것이다. 특히 자신이 개발한 형광, 빛나는 'IKB' 를 통하여 온 세상에 깨달음의 지혜가 널리 퍼지기를 염원하였던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선호하며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하는 동양의 수행자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수행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술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삶의 화두를 던져주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였으며 그가 시도한 것은 곧 예술이 되었다.

그는 예술은 지극히 '인간을 위한 예술', '깨달음을 지향하는 예술' 을 추구하였다. 그 당시 2차 대전의 혼돈 속에서 예술의 다양한 실험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 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노력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이었다.

예술이 자신들의 존재방식을 고민하던 흐름에 그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 유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브 클라인은 예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단지 부모가 모두 화가였을 뿐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가난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파리의 이모에게 맡겨졌다. 그는 성장하면서 예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를 깊게 성찰하였던 그가 다시 예술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서양에 선풍(禪風)이 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의 한명이 바로 클라인이다. 당시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서 선에 관련한 번역서들이 많지 않을 때 그가 일본에서 가져온 불교, 선 관련 책들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가 행한 행위예술은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어 그는 짧은 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된다.

클라인은 1958년 4월 28일 '공(Die Leere)' 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선을 이해한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전시장을 텅 비워놓고 전시 안내장을 돌려 많은 사람이 관람하도록 하는데 전시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창문도 막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그는 관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예술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한 순간에 새롭게 만든 것이다. 즉, 관객은 늘 관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관객과 작가의 개념이 무너진 것이다. 이 전시는 당시에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많은 젊은 예술가 들이 이러한 클라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위한 예술' 을 추구하게 된다.

그는 많은 예술작품을 하면서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예술은 인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으로 여긴 그의 조형어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 즉, 예술가의 시각과 관점, 생각의 깊이 등이 예술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가 이해한 '불립문자(不立文字)' 의 의미가 바로 그의 조형어법으로 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술가는 34세라는 젊은 나이를 살다가면서 우리에게 삶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던져주었다. 삶과 예술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여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젊은 예술가는 수행이 곧 예술이라는 당시에는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삶이 예술이라는 그의 생각은 기존의 예술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점차적으로 그의 생각처럼 진행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브 클라인의 어법은 마치 선사들의 화두와 비슷해 보인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하는 행위들은 과정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결과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떨어진 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예술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laue Schwammskulptur(1961)' 는 작품은 이러한 그의 정신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일상에서 쓰이고 낡은 스펀지에 그의 청색을 칠하여 새로운 훌륭한 조각 작품을 탄생시킨다. 색을 칠하기 전과 색을 칠한 후에 스펀지의 차이는 없다. 단지 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커 보인다. 인식의 전환은 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처럼 쓰고 버려지는 것을 수집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넣는 작품을 계속하였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신이 변화하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던 산천초목들이 그대로가 아니게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자는 외부의 변화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이브 클라인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예술가이며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인체측정(1960)' 은 또 다른 인식을 가져다주는 작품이다. 모델들에게 청색의 물감을 칠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 위에 자신의 신체를 찍도록 한다. 여기에서 인체는 마치 붓처럼 도구가 된다.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하며 늘 가꾸며 살아가는 육체를 그저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즉, 정교하지도 않은 도구로 사용되는 인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하며 무수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체를 어떠한 인식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브 클라인이 보여주는 작품들은 행위 예술, 오브제, 설치, 회화, 조각 등 다양하다.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예술로 승화시킨 그는 짧은 삶을 마감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남겼다. 그의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미술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나아가서 동양의 정신성을 통한 선사상이 유럽에 확산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나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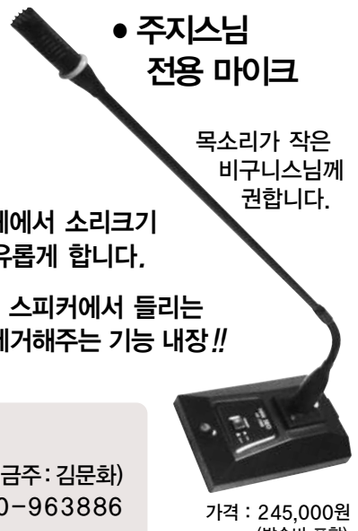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3~2015.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3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5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6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사랑하고 안아주세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스님 지음 | 수오서재 펴냄 | 1만 4800원



이 책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화제를 모았던 혜민 스님의 4년 만의 신작이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메시지를 담은 이번 책은 그동안 저자가 SNS를 통해 마주한 많은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끌어낸 생각들의 총집합 모음이다.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한 혜민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 동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완벽치 않은 문제투성이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우선 나 스스로만 돌아봐도 부족함이 많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공부나 일 처리도 생각처럼 잘 해내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뒤돌아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내 아이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의 못마땅한 습관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 또한 다툼과 갈등, 사건 사고가 끝없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혜민 스님은 나 자신이 완벽치 않듯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음을, 그럴수록 더 크고 깊은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 안에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자비한 시선도 함께 있음을 일깨우고, 마치 엄마가 내 아이를 지켜보는 듯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본성을 깨치도록 돕고자 한다.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친절한 화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250만 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는 혜민 스님의 글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 생활 속의 비타민 같은 에너지원이 된다.

혜민 스님의 '마음이 크는 이야기'
SNS통해 대중과 소통한 총집합 모음
부딪치는 인생문제 대하는 자세 다뤄

'어머니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혜민 스님의 책이었다 합니다. 어머니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보는 스님의 글은 매일 비타민 먹는 기분이에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요즘 너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스님의 어떤 메시지로 이 힘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연습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등등.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독자들의 기대평에는 혜민 스님의 글을 접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이들의 기다림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도리어 스님은 그간 온라인, 오프라인서 마주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자신에겐 큰 공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들이셨고, 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신 자비의 화신들이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마주하며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지혜를 쌓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 과정서 올라온 생각과 깨달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하나의 탑과 같은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들이듯 나 자신에게 공들이세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등 나 자신을 돌보는 메시지(자애 편)로 시작하는 이 책은 가족, 관계, 용기, 치유에 이어 '마음의 고요한 지점', '깨어 있음'에 대한 주제(본성 편)까지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인생의 길목마다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주일 기자

위빠사나와 간화선 통합한 '선수행 길라잡이'

위빠간화선

대현 지음 | 올리브나무 펴냄 | 1만 2천원



"위빠간화선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일반인도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하루 한 번씩 백일만 읽고 노력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수행의 열매를 훨씬 쉽게 수확하게 해주는 선수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저자가 주장하는 〈위빠간화선〉이다.

현재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중인 이 책의 저자인 대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서 남산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이런 참선 수행의 경험을 통해 대현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지만,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중 '위빠사나'를 접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다. 처음에는 호흡의 움직임 중에서 '일어남' 하나만을 알아차리다가 어느 정도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면 이제 일어남과 꺼짐을 알아차린다. 좀 더 집중이 되면 일어남, 꺼짐, 쉼까지 알아차린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불러오고, 복부가 불러오면 그것을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리며,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든다. 숨을 내쉬어 복부가 꺼질 때 그것을 '꺼짐'이라고 알아차리며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들어, 들이쉬고 내쉬는 주인공을 찾는다. 들이쉬고 내쉬는 이놈이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든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50안거 성만한 저자의 수행체험 담아
두 수행법 접목한 '위빠 간화선' 소개

저자는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이렇게 열심히 수행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해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로나온책



어머니의 선물

대안 스님 지음 | 기원 펴냄 | 1만 3천원

이번 책은 대안 스님의 세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은 자신이 그동안 습작한 작품 중 108수를 모아 엮었다. 스님이 주로 대중들과 시를 통해 소통하는 곳은 인터넷과 각종 시화전이다. 그동안 조계사 국화축제를 비롯해 마곡사, 전주 덕진공원 연꽃축제, 동국대 팔정도 광장 등의 행사에서 시화전을 통해 시를 공개했다. 책은 '어머니의 선물' '이룰 수 없는 사랑' '꿈으로 가는 열차' '누가 아느냐' '먼발치에서' '꽃이 지는 날쯤' 등 소주제 6개로 구성돼 있다.



선문염송강설

보경 지음 | 불일출판사 펴냄 | 2만1천원

〈선문염송집〉은 여러 선사들의 어록과 전법을 연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옛 선사들의 문답, 즉 화두 1,125칙으로 만들어졌다. 초판본은 몽고족 침입으로 소실됐다가 그 뒤 진각혜심의 제자 정진국사 몽여가 1,125칙에 347칙을 더해 1,472칙을 수록해 다시 각판했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이 재각된 고칙은 1,463칙에 그친다. 이 책은 부처님의 고화, 화엄경 등의 경전, 서천 28조, 중국의 6조 및 선지식들의 고칙순으로 배열해 선맥의 유통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명상

김동민 지음 | 신광문화사 펴냄 | 1만 2천원

저자 김동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성장기부터 만 4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퇴직 후로 줄곧 명상을 하며 지냈다. 이 책은 저자의 명상 체험에 대한 결정물이다. 책에는 명상법을 비롯해 주력선과 간화선, 죽음과 근원에 대한 문제 등을 고찰해 놓았다.

저자는 "자복을 체험하고 엄청난 환희를 느끼며 죽음을 극복하고 잔잔한 희열 내지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상"이라고 밝혔다.



선림의 바른길

각암 성원 스님 엮음 | 동진기획 펴냄

조계학인이라고 밝힌 저자는 이 책을 정법안장으로 삼처에서 전법한 석가세존의 수행법을 소개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힌다. 책을 살펴보면 정법송과 이에 대한 주해를 달아놓았고, 수행의 묘체인 진성의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온갖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더렵혀진 이 몸이지만, 오묘한 진성을 감통해 도를 이루려 한다면 삼독심을 끊어서 계정혜 삼학을 부지런히 닦아 무명생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화제의 신간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 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教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中 불교 중흥에 동물 복지 운동 '잰걸음'

생명존중사상 영향으로 동물보호 중요성 역설

중국 불교 중흥과 함께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철학이 돌풍을 일으키며, 공산주의 출현과 함께 억압돼 온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다.

'Eurasia review'는 2월 5일 "중국 불교 중흥이 수십 년간 정체됐던 동물 복지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동물복지 관련 법안을 수정 검토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는 1989년 발효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야생동물 사육허가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육 및 교육하는 것이 보호의 한 방법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법은 동물착취산업 성장을 종용한단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동물복지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urasia review'는 "동물보호란 목적보단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정부의 야생동물보호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은 중국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2013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공의견을 수렴해 입법 개정안을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불교 중흥은 이러한 동물복지운동 바람에 방아쇠를 당겼다. 공산주의 아래 억압받은 종교 및 철학 사상 등이 재번영하며, 생명존중사상 등이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불교 생명존중사상에

공산주의 시대 억압받은
불교 '생명존중사상' 확산되며
동물보호단체 활동 '활성화'
NPC, 야생동물보호법 개정키로

뜻을 둔 동물보호단체 및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설립되고, 채식당 및 애완동물 사육이 큰 인기를 끌었다.

'Eurasia review'는 "1994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개인의 애완견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유기동물이 길에서 발견된 경우 죽이기도 했다"면서 "불교 등 종교 사상이 공산주의에 반해 경제적 자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물 애호(愛護) 행위가 사유재산을 증식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단 우려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방콕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한 남성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Eurasia review

중국 3대 종교·철학인 불교, 유교 및 도교는 공산주의 시대 개막과 함께 억압을 받아왔다. 마오쩌둥 정부는 불교 철학 등을 '유해', '반혁명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3대 종교가 주창하는 생명존중 및 자비 사상도 영향을 받았고, 정부는 애완동물 사육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주의연구소 맹 핑(Mang Ping) 교수는 "중국 문화는 불교의 핵심사상인 '자비'에 내장돼 있다"며 중국 사회서 불교 사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맹 핑 교수는 "중국 사료에 따르면 고대 왕조는 가축새끼, 임산부, 가축 등 죽이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면서 "서커스용 곰, 실험용 동물 등 실시하는 오늘날 우리가 전통 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불교의 자비사상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중국 문화 전체를 잃고 말 것"이라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인도, 비자심사 완화 '고려 중'

안사리 부통령 동남아 순방서 발표… 불교성지순례 활성화 목적

최근 인도가 불교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비자발급완화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을 마친 하미드 안사리 인도 부통령은 2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쭐랄롱꼰 대학교에서 '인도, 태국 그리고 아세안-관계회복의 밑그림'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발표에서 그는 "인도 아소카왕은 불교 특사를 보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전파했다. 이곳에서 인도 신화와 민속 문화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연결성이 향후 아세안(ASEAN) 회원국과 인도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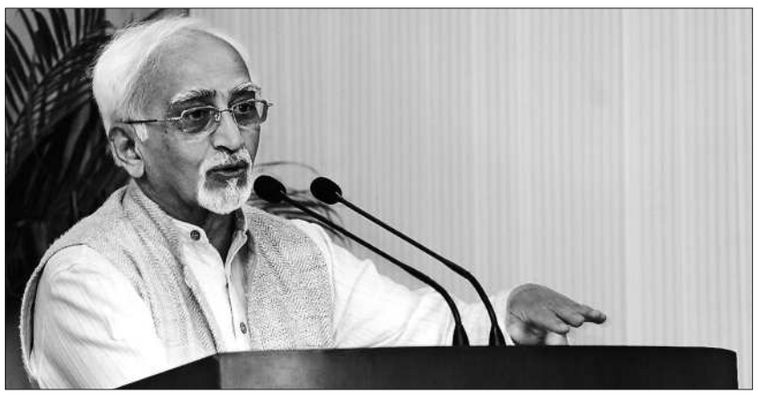
안사리 부통령은 50년 만에 처음 동남아지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인도가 전파한 불교문화유산의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 서사시 라마끼엔(Ramakien)은 고대인도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라마야나(Ramayana)를 바탕으로 한다. 이밖에도 아쌈(Assam) 지방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태국어와 관련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18~19세기 근대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동남아로 이주했고, 이런 연관성들을 고려해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불교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발급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사리 부통령은 나란다 대학의 재건립도 언급했다. 그는 "나란다 대학은 한때 세계적 명성을 떨친 '지식 창고'로 세계석학들이 나란다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했다"며 "나란다 대학은 몇몇 아세안 국가의 협력 속에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으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과 베트남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하미드 안사리 인도 부통령(사진)은 불교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비자발급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더이코노믹타임스

화재로 잃은 법당, 이웃종교 도움으로 법회 재개

종교화합회 평화모임 열어…
재건기원과 종교간 화합 도모

화재로 갈 곳을 잃은 미국의 한 불교 명상센터가 지역 내 이웃종교의 도움으로 법회를 다시 열었다. 이는 '종교간 화합'을 몸소 실천한 사례로 꼽히며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일간지 '컬럼버스디스패치'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미국 오하이오주 불교명상센터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도했다.

컬럼버스 카르마 텍섬 촐링 명상센터(the Columbus Karma Thegsum Choling meditation center, 이하 KTC)는 1990년부터 오하이오 불자들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화재로 KTC명상센터는 불교 경전 몇 권과 1977년에 지역 불교모임을 만든 티베트 승려 캔포 카르타르 린포체로부터 받은 불상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에 탔다. 특히 40년 간 녹음해 온 법회 오디오 음반이 모두 소실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화재로 갈 곳을 잃은 미국 오하이오 KTC명상센터 신도들은 한 장로교회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임시 법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컬럼버스디스패치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고펀드미닷컴(GoFundMe.com)'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10만 8천 달러 정도가 모였으며 명상센터 임직원들은 이 돈으로 건물을 신축할지 또는 이사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종교화합회(Interfaith Association of Central Ohio)는 종교간 평화모임을 열고, KTC명상센터 재건 기원과 함께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화합회장 필 워시번은 "이번 평화모임은 미국 전역 곳곳에 직면한 위기에 대응키 위해 몇 달 동안 계획된 것"이라며 "비록 다른 종교를 지향할지라도 우리는 연민심으로 이웃과 함께할 것이다. 만약 우리 모임 중 한 종교단체가 KTC명상센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어퍼 앨링턴에 있는 장로교회도 KTC명상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법회 및 명상 공간을 잃은 신도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다. 이에 KTC명상센터 신도들은 개인 명상용 방석과 경전 등을 가져와 화재 후 중단됐던 법회를 처음으로 열 수 있었다.

KTC명상센터 지도법사 웨슬리는 "유대교와 인근 아트갤러리에서도 장소를 빌려줬다"며 "신도들은 넘치는 지원과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하이호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사가 끝나면 KTC명상센터가 있던 크랭클린튼 빌딩은 곧 철거될 계획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故 데이빗 보위 "발리섬에 유해 뿌려달라"

장례도 불교식으로 비공개 진행

불자로 알려진 故 데이빗 보위(David Bowie · 사진)가 그의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루길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1월 29일(현지시간) 데이빗 보위가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불교식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유해는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발리의 한 섬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식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식은 가족끼리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thecomeback.com

발리섬은 주민 대부분이 힌두교도로, 독특한 전통 음악과 예술로 유명하다. 또 영적(靈的)인 의식이나 정신적인 고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데이빗 보위 역시 발리섬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각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불교학과 [3월 5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아함경 1) ② 불교문화와 포교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아함경 2) ⑤ 반야심경 ⑥ 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2년차	과목	⑦ 인도불교 ⑧ 중국·한국불교 ⑨ 법화경 ⑩ 화엄경 ⑪ 정토경 ⑫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경집교수, 문무왕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박종교수, 정성준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1월 1일부터 ~ ■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원효염불) [3월 10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8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10일(목)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사주를 잘 몰라도... 통변에 자신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프린터 출력을 할 줄 알면 그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귀하께서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면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
성인에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려주는 내용!
● 문, 이과 통합과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 컴퓨터에 생년월일만 입력하거나 설문응답 자료를 입력하고 인쇄 출력하는 방법만 알면 즉시 자료를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

유형 : 생년월일 기준. 설문검사 기준



➔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그 순간 16장의 자료가 출력된다.(학생.성인용)
➔ 1년 신수를 월별로 데이터화 한 자료가 5장 출력된다.(학생.성인용)
➔ 설문응답을 마치는 순간 15장의 자료가 출력된다.(학생.성인용)

"인문계 고3학생과 명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타를 기준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 진학상담교사. 학원운영자. 종교인(스님). 철학인.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본 연구학회와 함께 할 지사 모집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3시간)
장 소 : 진로적성힐링상담소 401호 [총신대역 5번 출구 200m] (방배동 950-1번지)
연구소 : 010-5418-5972 / 강북지사 010-2146-1346 / 경기지사 010-8862-6624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 불반니원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건강태극권수련
출장지도가능
20년수련
사주, 풍수
031-591-9023
보현수련원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살풀이,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노스님 무보시 로
시봉하며 기도하실
신심있는 보살님
인연 기다립니다
(부산 / 나이, 조건 없음)
010-5886-08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삼방동 신어산 동림사)
055-337-00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10-2627-857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신통력을 전수
스님에게만 은밀하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쉼템플 기자단 기자학교 개강
템플스테이 활동 및 사찰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는 기자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개강 (6강+워크샵)

쉼템플 지도자 교육생 모집
템플스테이 모집/홍보/진행/관리를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개강 (4강+워크샵)
쉼템플 운영실장 조보길 010-8997-8578 www.Shimtempl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 실습장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 인 모 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안성시 영평사 중앙불교대학원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특강 | 홍고(새벽에 치는 큰 북)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 연 락 처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



사 찰 안 내

▶넓은 터전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목조 산신각, 요사채(5동), 계곡물 철철 흐름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010-3560-8522

▶바닷가 부근 토굴◀
- 위치 : 통영 (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 **(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 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계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제천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45㎡ 한옥요사채 80㎡
- 토지 250㎡
- 제천시장부근, 유동인구 많음
- 포교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60평 ◎ 대지: 22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60평
◎ 양도: 10억 5천 ◎ 양도: 7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단양 토굴 양도
- 토지 4,500㎡, 검루 75㎡
- 전망좋음
- 노천불, 광수원 수입 있음
- 뒷편산이며 교통편리함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KTX 울산역 10분거리
- 대지 3,300㎡ 국유지 660㎡
- 대웅전: 목조칠보삼존불, 나한전,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2동 그외 다수 각종 조경수와 연못 산세좋고 깨끗한 계곡물
- 가액 : 23억(융자 5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 오래된 암자 대지 전 176평
- 법당 12평, 요사채 약 14평
- 용도 : 철학보는데 적합 노스님 계시기 적당합니다
- 가액 : 1억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도심속 현대식 건물 사찰

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

- 가액 : 13억

010-3860-1228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 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 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1-1750-4040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조정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6개 <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사자봉 송림숲, 가람조성 5년!
- 공찰소임관계로 급 양도함!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조립건물3동, 약사석불12자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①종교부지+시설물= 2억1천
②임야포함 3억2천(절충가)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내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8758-1313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 평수 : 145평, 2층 전체
- 구조 : 주지실(욕실) 다실 외 방3개 (엘리베이터)
- 가액 : 1억 2천만원 월200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44-9097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 가지게

-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3개월 선납시 10% 할인)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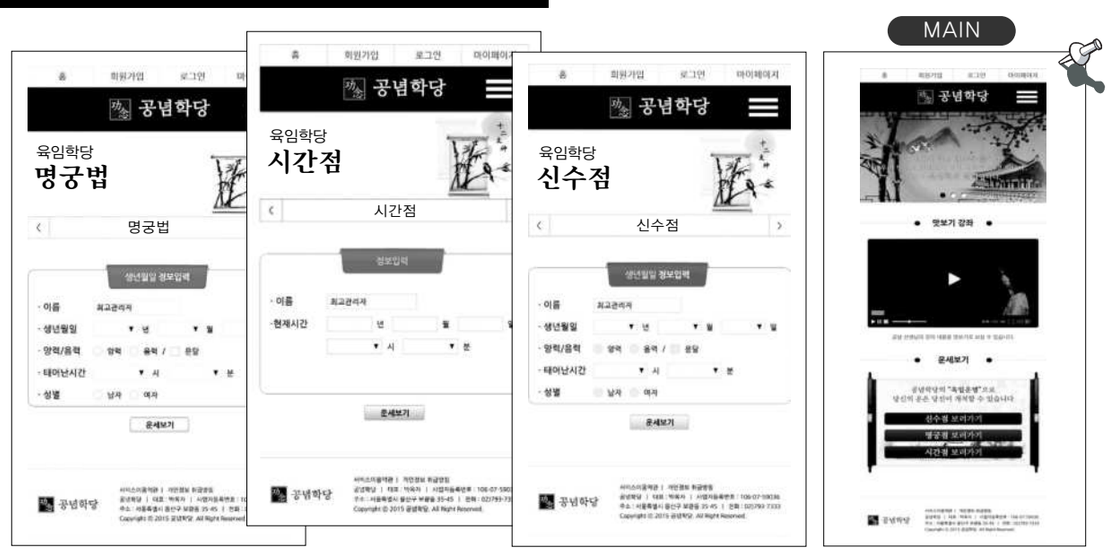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저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2〉 지금 어디에서 호흡을 느끼나요?

언제든 돌아갈 '마음의 고향' 찾기

1단계: 온몸 호흡 알아차림

호흡은 삶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이자 깨어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도와주고 지지해주며 늘 함께하면서 마음이 편안히 이완되고 맑고 밝게 깨어있도록 합니다. 〈호흡관법경〉에서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호흡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적절한 도구로 좌선을 하던 하지 않던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에 늘 집중해 온전히 깨어있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계발된 마음은 사물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하고 공포나 외로움, 분노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알고,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게 될 〈호흡관법경〉에 접근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나는 이것을 간명한 수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마타(samatha, 止)입니다. 먼저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을 잔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편안히 이완되고 맑고 밝게 활성화되어 호흡의 지지를 받게 된 마음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위빠사나 또는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감정, 사고, 계획, 걱정, 몸의 상태, 소리, 냄새 등 우리가 경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빠사나 수행법에 익숙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호흡은 오히려 완전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서, 모든 형태의 사물이 갖는 진정한 본성을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바로,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호흡관법명상 전 단계를 제대로 수행할 때 보통 호흡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호흡관법경〉의 16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서 출발해 봅시다.

"온몸을 느껴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하며, 온몸을 느껴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수련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앉아있는 온몸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찾거나 온몸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단지 지금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깨어있는가' 입니다. 숨 쉴 때마다 몸의 각 부위에서 다른 자극이 느껴집니다. 그 자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집중하는 법과 함께 느긋하고 유연해지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숨이 선명하든 선명하지 않던 다만 숨 자체에 깨어있는 법을 배웁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거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오래 익혀 온 습관 에너지가 주도하게 되어 새로운 가르침에는 신경도 안 씁니다. 마음은 호흡보다 더 재미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등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거나, 20년 전에 뛰었던 마라톤처럼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명시적으로' 집중과 평온함을 계발하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종종 멋지거나 무서운 미래 또는 결코 다시 올 수 없는 과거의 멋지거나 무서운 일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들숨과 날숨이라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제 강박적인 마음이 '지금, 여기' 라는 진실보다 개념화된 현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행은 아주 극도로 단순합니다. 필요하면 몇 번이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지 그 생각이 왔다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미묘해지고 세밀해지면 호흡과 호흡 사이에 긴 침묵의 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주 거기서 길을 잃고 그 침묵의 틈을 이런저런 생각, 상상, 계획, 미래 고민, 또는 과거 떠올리기로 메우곤 합니다. 거기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수 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흡 사이에 틈이 있다 하더라도 몸은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호흡 때까지 '앉아 있음' 에 깨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깨어있을 수 있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또한 왔다가 가곤 합니다. 기분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편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도 긍정적이 되다가도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에 전념해도 때로 싫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온몸 호흡 알아차림을 고향처럼 만드십시오. 호흡은 그런 마음챙김을 지지하는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마음챙김은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을 포착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수많은 흥미로운 곳 중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몸, 앉아있음, 그리고 호흡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심오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단지 심란함일 뿐입니다. 핵심은 앉아 있음, 호흡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바로 그 단순한 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수행법에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

호흡, 마음 들여다보는 도구
의도적으로 살피는 것 아냐
지금 있는 그대로 느낄 뿐
호흡 사이에 근심 걱정 일어나
'깨어있음' 자각하며 돌아갈 것

어정쩡한 태도로 임하면, 열린 마음의 창으로 거친 습관의 힘이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차지해 버릴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호흡은 점차 평온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체험한 바와 같이 호흡이 평온해지면 몸은 더욱더 이완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몸의 강력한 조절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마음의 강력한 조절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챙김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더 값진 선물도 나타납니다. 몸의 이완은 마음의 이완을 이끌고, 마음의 이완은 호흡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몸은 연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좌선이 더욱더 쉬어집니다.

이 과정이 금방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 더 평온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루하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몸과 마음, 호흡이 통합된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호흡 받아들이기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면, 경험 자체에 더 충실하게 되고, 마음이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것, 즉 희론에 덜 사로잡히게 됩니다. 희론은 빨리어로 빠빤짜(papa?ca)라고 합니다. 빠빤짜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다시 또 다른 생각을 낳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연속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몸을 알아갑니다. 이런 지식은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몸을 에너지의 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점차로 몸을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간단히 몸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잠시 쉬고 다시 해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혹시 수행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수행은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집중하기 위해 호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나는 호흡에 모든 것을 집중할거야. 그리고 지속적인 호흡 깨어있기로 올림픽 기록을 세워야지."

그러나 금메달은 지혜로워지거나 자유로움을 얻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생생하게 살아있음은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소리, 생각, 냄새, 이미지, 감정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 낸 모든 것과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은 두 개의 궤적을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궤적으로, 마음이 낳은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에 지배되는 삶입니다. 이 궤적에서 당신은 전적으로 사고에 바탕을 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은 당신과 삶 자체의 원초적이고 때 묻지 않고 친숙한 경험 그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궤적은 다르마인 법의 궤적입니다. 당신은 깨어있습니다. 당신은 주의집중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현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과 직접 접촉합니다.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개념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 스스로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의 영역에 속하는 고정된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습관적인 조건화에 더 이상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은 종종 그것이 없을 때가 더 좋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더욱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은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바라봄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당신은 삶을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더 현명하게 살게 됩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개강일시 : 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복불교대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 (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616 / 묘련 010-2250-7499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문 밖의 목련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와 이유가 물을 흐르게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람과 바람으로 구름은 흩어져 간다. 어느 날, 물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서고, 구름 흩어진 자리로 따뜻한 바람이 지나면 그 계절의 이름이 곧 봄이라. 법당에 향 한 자루 피우니 문 밖에 꽃이 한 잎 피고,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얹으니 바람은 봄바람이라. 향 한 자루 피우는 일과 기와 한 장 얹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물 흐르고 구름 흩어져 가는 일이 뜻 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이르고 이른, 아직은 차가운 봄날에 감히 한 소식이라고 듣는다. 굳이 그 소식의 증거를 대라 하면 문 밖에 선 목련 밖에….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부부 소통법 ①

머리 아닌 정서와 느낌으로 소통하라

이혼, 이해·소통 부재서 비롯
자신의 틀에서 상대 보려해
서로 입장에서 '나'를 봐야
소통 잘하면 자녀도 보고 배워

"부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진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의 문 활짝 여는 것"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스님들 사이에선 그런 일이 많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다. 아무리 싫어도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다.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하는 행동마다 얄밉고 보기 싫어도 쉽게 가정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백년가약이라는 아름다운 언약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아름다운 언약을 버리고서라도 가정을 떠나고 싶어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율이 그것이다. 예식장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며 살 것'을 맹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왜 그토록 많은 부부들이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이혼의 길을 선택할까? 이유는 딱 하나, 이해와 소통의 부재다.

한 번은 40대 후반의 L여인이 남편과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중이라며 찾아왔다. 이유인즉,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손찌검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남편의 직업은 의외였다. 모 국가중앙부처의 촉망받는 중간 간부인데다, 실력이 좋아 동료들보다 승진도 빠르다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는가를 물었다. 여인은 10여년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고 물었다. 여인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참 좋았다고 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뒤부터 점점 말이 없어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더니 지금은 가족들과 거의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술에서 깨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여인의 하루 생활에 대해 물었다. 여인은 둘째가 태어난 뒤론 거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다. 두 아이들 키우는데 바빠 남편과 단둘이서 영화 보러 가는 것은 물론, 여행 한 번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답은 나왔다. 남편은 지금 가족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었다. 동료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직장에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다.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참고 살았을 것이다.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 키우는데 바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지는 않은 채 아이들에게만 매달리고 가정 일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오히려 짜증을 냈던 것이다.

나는 여인에게 처방을 내렸다. 남편의 일정을 알아낸 뒤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거실에 꽃꽂이를 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화장을 곱게 한 뒤 연애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 남편을 살갑게 맞으라고 했다. 식사 후엔 이벤트도 준비하라고 했다. 식탁에 촛불을 켠 뒤 잔잔한 음악을 틀고 남편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며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 참 많았지.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먼저 말을 건네라고 했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있던 남편이 포도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켠 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여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당신을 이해해주지 못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모든 고통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부터 생겨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자신의 사고의 틀로 바라보려 한다. 자신의 안경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풍경만 보려 한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이 본 풍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대인관계, 특히 가족관계는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없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가족 소통법 제1 원칙이다.

L여인과 남편도 그랬던 것이다. 연애시절엔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잘 골라 입던 아내가 결혼한 뒤엔 화장도 잘 하지 않고 옷도 멋대로 입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 아이들에게만 온갖 정성을 다 쏟다보니 남편은 어느 샌가 자신이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채 L여인은 L여인대로 가족 일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해는 치료제다. 우리가 아내, 혹은 남편이나 자녀, 또는 다른 가족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실수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나쁜 의도나 악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L여인과 남편처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엄마 아빠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이들이 엇나갈리 만무하다. 또한 서로 이해와 소통을 잘 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할리 만무하다.

소통을 잘 하는 부모는 자녀들과도 소통을 잘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소통을 잘 하는 부모의 마음은 배우자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소통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으로, 내 안경이 아닌 상대방의 안경으로, 내 틀이 아닌 상대방의 틀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머리 마음(생각)이 아닌 가슴마음(정서,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신문 및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동시가 각각 당선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등 몇 권의 산문집과 시집, 동화책이 있다. 현재는 빠리사선원장과 행복단추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이

자가 자를 한사고 기도.
상 배 . 종 대 국으로지를 하오니 니다.
교 하 분, 주하 분.
지역사에서 하 분지도자 .
에 서 하 화주보 니다.
에 서 는 종경불사를 하오니 하시기 니다.
우리말 수경, 문수보 문, 보현행원, 음보 보문, 지장경, 타 경, 금강경, 사 경, 대불능엄주, 스 불법어, 년법어, 가 도, 대 기타
하 분 상호, 은이 드립니다.
대입시 기도상 . 지금 상 이 중요
방, 방, 중 방, 비만, 비, 우 , 기, 스 스, 가족 갈등,
상과 지도 기도.
가 방문, 사방문, 상 소, 상 과기도 드림.

영가상영가 도 - 일본 오사 상 도

한도가 다
서도하가정서 도하 여함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084호 현대불교
2016년 2월 17일(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진짜로 믿고 맡겼을 때 한마음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부족한 거는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판단치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포착했다면, 과학자들한테 가고 옴이 없이 전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딴 데다 지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 부족한 재료를 딴 데서 끌어들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죠. 수명이 짧은 것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으로선 첨단의 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한 몸뚱이도 지탱을 못하고 이렇게 간대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자꾸자꾸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진화를 시키고, 마음의 계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 보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 중요한 재료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체험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안 해 보면 모릅니다. 아까 내가 잣 얘기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해 보지 않는다면 귀한 줄 모르고, 즐거운 줄 모르고 자유스러운 줄도 모릅니다. 생활고를 모른다면 그 고를 시원하게 대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를 알아야 고를 해결하죠. 고라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목이 컬컬하고 춥고 배고플 때 뜨거운 엽차 한 잔을 얻어먹는다면, 한 번 보세요. 뜨거운 줄 아니까 시원한 맛이 나지, 뜨거운 걸 모른다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죠. 어디서 고가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 애고(哀苦), 업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 한군데다가 되놓으면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바로 거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되면서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딴소리하지 마세요, 이제. 하하하…. 딴소리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차에 얘기했습니다. 일체 만물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의 재료를 가졌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글어 쓰기에 달려 있다고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글어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떠한 병명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콧방귀를 탁 뀌고, '그건 이름일 뿐이야. 우리 몸속에서 일체 나 아님이 없는 나가 한마음에서 다 작용을 하는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맡겼을 때, 한마음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란 건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라면 그냥 담박 꺾어집니다. 이 뜻을 아십시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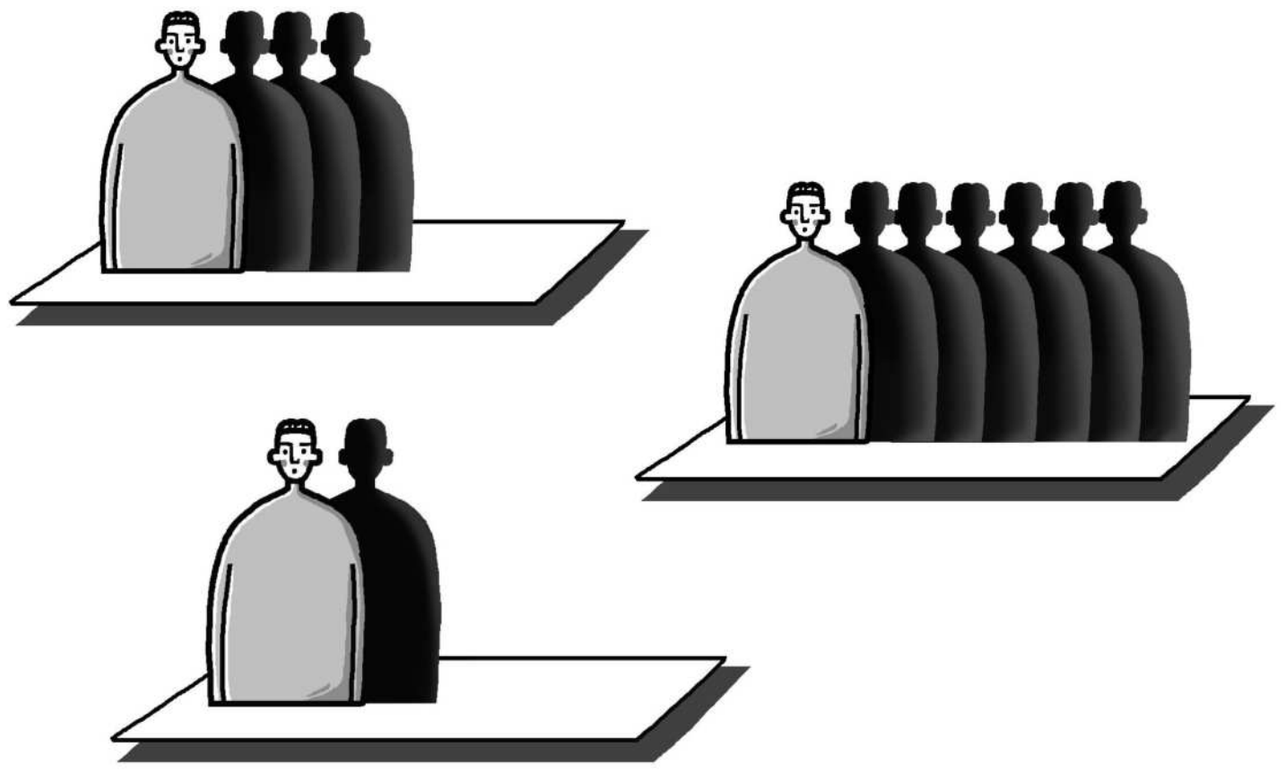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질문을 드리기 전에 큰스님께서 미리 아시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형제님들을 대신해서 큰스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종교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숭상하면서 자라 왔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재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도 10년 동안 법당에 다녔습니다. 3년 전부터 본원에 인연이 돼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천도재를 이곳에서 올렸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백일기도 발원을 올려 전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두 큰스님의 해은(海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도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십니다. 천도재를 올렸는데도 촛불재니, 또는 조상을 위한 백종(百種)이니 이러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왜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참여해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이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 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이 공부 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러느냐.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 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

☞ 18면으로 계속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둘 아니게 空해서 돌아가기에 죄 붙을 자리가 없다!

☞ 17면에서 계속

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한 가지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견성성불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저희들의 욕구도 모두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스님을 따라서 배우는 저희들의 공부 목적이 결국 큰스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 인연을 살펴보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장차 큰스님의 경지에 이를 제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큰스님 네, 그 말씀 잘하셨어요. 우린 죽으나 사나 같은 도둑놈이듯이, 허허허…, 다 한 자리로 항상 도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빠르고 더딜 뿐이지, 다 됩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까?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참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원효 선사의 경전 해설 『대승육정참회론』에 이르기를 "모든 죄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죄업은 안에도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얼핏 느끼기에는 그러면 '죄업이란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죄업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참회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것은 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게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냥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중에서 대답할 분 안 계십니까? "모든 죄업이 붙을 것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이 죄업이 통틀어서 하나도 붙을 자리가 없다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얼른 한자리 하시죠?

신도1(남) (대중 가운데서) 찰나로 돌아가니까 없죠.

큰스님 예? 하하하….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 이런 소리를 '둘 아니게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렇다.' 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첨보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붙을 자리가 없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길 듣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기에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 버렸어요.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놔 봐! 고쳐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가는 도중에 그냥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러한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죠. 좌선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말뜻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세히 가르쳐 드리느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병 증세를 병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름이다,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다, 가지 못한다 간다, 이사 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 하는 것도 이 모두가 관습이다.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니까 그대로 자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인간은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니까 그걸 가려서 생각하고 거기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봤을 때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없지요. 하하하…. 붙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찰나찰나 나투어서, 바뀌어서 돌아가는 까닭이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붙었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는 못합니다. 허허허…. 삼세를 모르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질문자1(남)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전인데,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여러 스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 한 분께서 불법의 참뜻을 일컬어 '판치생모(板齒生毛)' 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짐작으로는 말을 여읜 경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시 헤아려 보곤 합니다. 판치생모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간단합니다. 널판 같은 이빨에 털이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판때기, 즉 말하자면 '이 널판지같이 생긴 이빨에 털 난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옛날에 그저 낚싯밥으로 던진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럼 빨리 알아들으시겠죠? 널 같은 이빨에 털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 지금, 이빨에 털 난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어디 있는 것이 귀신 방귀씨냐고 물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서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혜가 스님에게 "네 편안치 않은 마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 줄 테니까." 이랬듯이. 뉴욕 사람이 왔을 때 "아, 병을 내놔 봐라. 내 고쳐 줄게." 했듯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 말 대답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보기 위한 방편이지요. 얼른 쉽게 말해서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일러 주고 대답을 바라는 사람이 어딨나 하겠지만요. 하하하…. 어떻게 간단하게, 묘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인간은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니까 그걸 가려서 생각하고
> 거기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죠.
>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봤을 때 그대로 법이에요.

신도2(남)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손뼉 치는 소리?)

큰스님 허허허…. 이거 봐! 이거는 참고적으로 들어야 돼. 털이 난 거를 알았다 하고 봤다 할지라도 이거를 기르려면, 허! 몇 해 걸려. 하하하…. 그런데 이거를 기르려면 말이다, 그 판치생모에서 그 털 난 것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고, 그 털을 털한테 다가 먹일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대로, 나온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금 놓으라고 하듯, 더 배불리 먹여도 아니 되고, 덜 먹여도 아니 되고 잘 먹여서 둘 아니게 나투는 그 도리를 알기까지 잘 키워야 돼. 알았지? 하하하….

질문자1(남) 여러 가지 가르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큰스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빌려서, 이미 오늘 법문 중에 해답이 다 나왔지만 저의 신상 문제를 감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원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 당시 큰스님 친견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해서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공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지, 미련하다 보니까 해답을 다 주셨는데도 또 더한 해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큰스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넣고는 그냥 들이다지죠? 첫 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뭐 그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땐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累)가 되게, 저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함부로 해 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당신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놓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줍잖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 인 것도 그냥 잘못돼 가지고 씰그러지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은 콧방귀 뀝니다. 하하하….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겠니?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 만하면은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렇잖으면 혼나!' 하하하….

혼낸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없애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면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고요.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닙니다.

질문자1(남) 여러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지금도 그 병이 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웃음) 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자1(남) 지금 스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겠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됩니다.

큰스님 그 왜 그렇게 질깃질깃하게 그걸 떠나질 못합니까?

질문자1(남)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다 떨쳐 버리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떨쳐 버리는 게 아니라요, 용광로에다 그거를 그냥 넣으면 그것이 그냥 재생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이 될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도 과거고 조금 아까도 과거니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도 지금 있었던 자리가 과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 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 세상보기

구멍 뚫린 공항 보안 대책이 절실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검색, 출국심사에서 환전, 사우나, 휴대폰 로밍 등의 생활 서비스까지 다양한 공항운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촘촘해 보이는 인천공항에서 지난달 21일 중국인 부부가 출입국관리소와 출국장 경계에 있는 유리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밀입국해 보안 문제에 빈틈이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베트남인도 환승구역에서 머무르다가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지난 3일, 잠적한지 5일 만에 검거됐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경비망이 잇따라 뚫렸다는 점에서 인천공항의 보안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석 달 전 중국인 한 명이 느슨한 감시를 틈타 직원 전용 통로로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1년 1월 러시아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자살 테러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2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터키 이스탄불의 샤비하교크첸 공항의 계류장에 있던 여객기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청소원 2명이 다쳤으며 이중 1명이 나중에 숨졌다. 또한 주변에 있는 항공기 5대도 피해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9.11 테러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항의 보안검색에서부터 커다란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 담당자는 안일하게 검색했었다. 결과론적 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보안검색을 철저히 했더라면 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요즘 IS집단의 잇따른 테러로 인해 전 세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불안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보안감시의 문제다. 공항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시설이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공항대테러에 대비해 보안관련 시스템의 담당 전문조직의 독립 및 전문화와 세밀한 검색을 위한 보안 검색장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번 일에서도 보안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공항의 출입국장과 보안검색은 용역회사가 담당하며,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권심사는 법무부 관할이며, 면세구역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관리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경비보안은 다수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이처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디에서나 그러하듯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으며 상호 배타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환승객과 미탑승 정보 등을 비롯하여 공항과 항공보안 등과 같이 국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과감하게 공유하는 내실 있는 정보 공유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철저히 보안검사 및 수사하는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국제공항답게 체계적인 보안 교육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밀입국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항객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이익 및 안보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보안을 강화하다보면, 공항이용객들에게 다소 번거로운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안전을 추구해야하는가? 편리한 서비스를 추구해야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내실의 보안 역시 튼튼한 외유내강의 모습을 기대한다.

발언대

조계종 · 선학원 문제 제언

부산 묘관음사 주지 서강 스님이 불교계 언론으로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에 전문을 게재하며, 향후 사부대중의 관련 의견 개진을 기다린다. 〈편집자주〉

선학원, 전체 분원장의 뜻을 들어라



서강 스님
묘관음사 주지
길상선원장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이사진과의 지루하고도 불편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두 집단이 벌이는 훼불행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자책감이 들어 평소 생각을 적어본다.

먼저 조계종 현 집행부의 선학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몇 가지는 변화를 가져야한다고 본다.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선학원 재산이 조계종 재산을 출연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견해인데 나는 이 점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됐고 현 대한불교조계종은 1962년에 석우대종사를 초대종정으로 하여 창종됐다. 역사적으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선학원 설립 당시의 스님들이 후에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 모여 대한불교조계종을 창종했을 때 주요 구성원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분명히 설정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다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과거 범행 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재직 시절 승려증을 발급했던 일이라든지 조계종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고난 후 다른 곳에 절을 짓고는 종단재산으로 귀속하지 않고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한 상당수의 사찰이 있음을 인정한다. 당시 선학원이 곧 조계종, 조계종이 곧 선학원이라는 심리적 등식관계가 설정돼 있었던 시절이었다.

다만, 재단법인은 민법에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만큼 따로 승려증 발급 운운하는 이른바 재단법인의 종단식 운영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선학원 임원진도 멸빈이라는 결과를 마치 기다린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승려증 발급 안내문을 띄우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번 두 집단 간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종헌, 종법, 불교도로서의 근본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위에서 동조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처신해서는 곤란하다.

두 집단이 갈라서서 제 갈 길을 따라 가야한다면 그 전에 꼭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선학원은 분종이냐 존속이냐를 묻는 전체 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분원장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 결과 과반수를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견을 좇아 대다수가 분종을 원하면 미련없이 탈종하여 새로운 종단과 집행부를 구성하면 될 것이고 그 반대로 현 이사진을 포함한 소수만이 분종을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현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다시 총무원 집행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총무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선학원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과정에서 먼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분종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총무원 집행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와 선학원 입장을 지지하는 자들로 나누어진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방송을, 지면광고를 몇 회에 걸쳐 방송, 게재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역사 앞에 그 정통성을 확보할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나 절집이나 개혁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지만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가치와 정반대로 사는 이들이 그런 좋은 가치를 아무런 부끄럼없이 얘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선사(禪師)들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꿈에서라도 생각이나 하셨을까? 가탄가비(可歎可悲)로다!

社說

불교계 국제 행사 진일보 '기대'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조계종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 달간 전문리서치기관 'INR플러스'에 의뢰해 내외국인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통계들이 도출됐다. 기원대회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기준 만점에 5.8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점 만점도 환산시 80.12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내용과 질적 수준이 5.8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5.8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화문 광장이란 환경요인은 5.73점으로 4가지 질문 사항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눈여겨 볼 점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6.05점)이 종교인(5.80점)보다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6.32점)이 내국인(5.72점)보다 만족도가 높아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적인 행사를 넘어 하나의 축제 행사이자 대회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가의 용이성과 안내표지판, 편의시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내국인의 경우 행사준비기간 확보 및 일반인 중심 행사가 부족했음을 꼽았고, 외국인의 경우 통역 및 영어 안내 등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한국불교계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과 비종교인에게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처럼 언론 매체 홍보와 일반대중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외국인에 대한 영어 안내 보강 등이 보강돼야 한다. 이를 보강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대규모 국제행사 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불교계 국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경 없는 봉사회' 외국인 포교 새 모델

부산 흥법사에서 외국인 봉사자들로 구성된 '국경 없는 불자 봉사회' (가칭)가 2월중에 출범 된다. 10여명으로 시작할 이 봉사회 구성원들은 출신 나라와 직업군도 다양하다. 티베트서 7년간 불교 수행을 이어온 미국인 동국대 교수인 에밀리 켈리 교수를 비롯해 티베트, 몽골, 인도 등에서 온 동국대 교환학생, 캐나다인까지 모두 봉사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봉사는 외국인들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가족애처럼 끈끈한 정을 쌓게 한다.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한국불교문화를 깊숙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장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 오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

'국경없는 봉사회'가 앞으로 담당할 역할은 수행이다. 흥법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수행을 위한 지도를 한다. 법회도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조한 즉문즉설 형식의 법문과 체험 위주가 된다. 외국인들은 일방적 형식의 수동적 법회 보다는 대화하며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능동적인 참여를 선호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구심점이 될 봉사회의 역할에 벌써부터 주변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들은 이제 봉사와 수행으로 외국인들 가운데 구심점이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불자들을 포교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봉사를 통한 외국인 포교의 새 모범 모델로 부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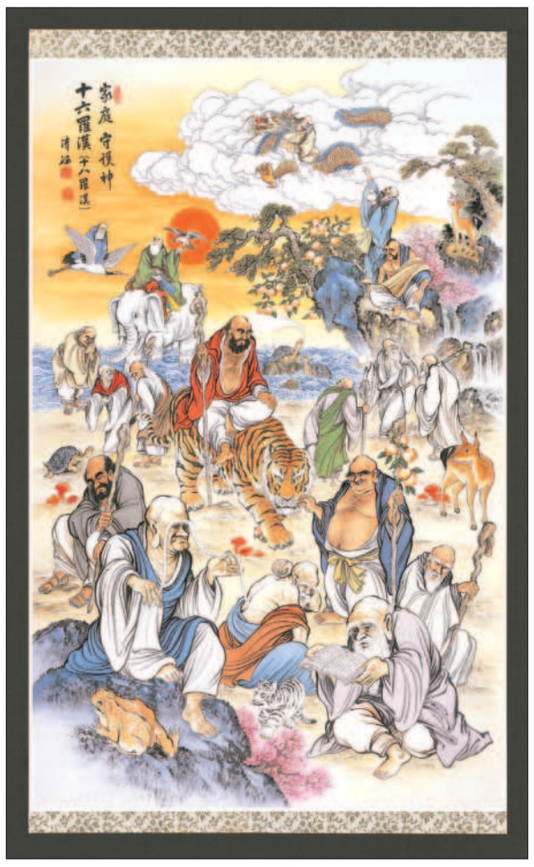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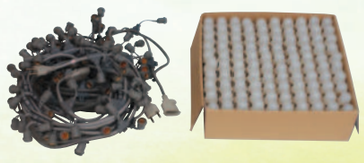
▶가야 공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 할인 예외 품목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뮤직에세이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skylife 171번 KT olleh 233번 SK Btv 555번 LG U+TV 185번 ▮케이블채널안내 | 02.3270.3300 ▮방송포교후원ARS | 060.800.7000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27일, 상품가 : 20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